

강혜선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 논문

한문편지를 활용한 편지 교육 방안
연구

2005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서 지 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편지가 갖는 쓰기·문학·인성 교육적 가치에 주목하고, 편지 교육을 통해 이러한 교육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교수 - 학습 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편지 쓰기는 비교적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쓰기 방식이므로 글쓰기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받을 사람과 쓰기 목적을 달리 하여 여러 가지 글쓰기 방식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쓰기 교육적 가치가 있다.

그리움이나 슬픔, 기쁨과 같은 인간적인 감정을 서정적으로 표현하고 일상에서 느낀 생각들을 작가의 상상력으로 참신하게 표현한 편지 작품은 학생들이 재미있게 작품을 감상하고 선인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이해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학 교육적 의의를 가진다.

또한 편지 쓰기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도록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며 자기 성찰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인성 교육적 의의를 아울러 지닌다.

이러한 교육적 의의를 갖는 편지 교육을 학생들에게 함에 있어 본고는 옛 문인들이 쓴 한문 편지를 활용하였다. 옛 문인들의 한문 편지에는 시대와 사회가 변해도 여전히 유효한 교육적 가치들을 찾아볼 수 있으나 현행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옛 문인들은 자신의 사상과 생각, 감정 등을 그들의 편지에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읽는 상대를 배려하는 글쓰기를 하였다. 표현 면에서도 자신의 생각과 진실한 감정을 체계적이고 분명하게, 때로는 문학적으로 표현하여 한편의 문학 작품으로도 전혀 손색이 없다. 옛 문인들은 이러한 편지글을 통

해 정신적 벗과 정서적 교류를 하였고, 제자와 자식의 인성 교육도 하였다. 본고가 편지 교육을 통해 이끌어내려는 교육적 가치들을 옛 문인들이 쓴 한문 편지는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옛 편지가 가지는 이러한 교육적 측면에 주목하여 옛 문인들의 한문 편지글의 감상을 통해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 형성과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더불어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상대에게 명확하게 표현하며, 상대를 배려하는 격의 있는 글쓰기로 나아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한문 편지 자료를 ‘전달 중심의 편지’, ‘표현 중심의 편지’, ‘교훈 중심의 편지’로 나누고, ‘전달 중심의 편지’에서는 ‘쓰기’교육적 가치를, ‘표현 중심의 편지’에서는 ‘문학’ 교육적 가치를, ‘교훈 중심의 편지’에서는 ‘인성’ 교육적 가치를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각 장에서는 한문 편지의 예와 그에 따른 학습 활동을 제시하였다.

‘전달 중심의 편지 교육 방안’에서는 실용적 목적을 가지고 쓴 한문 편지를 대상으로 하여 쓰기 목적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글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고 남을 배려하는 예의바른 글쓰기로 나아가도록 하였다.

‘표현 중심의 편지 교육 방안’에서는 문학적 표현이 돋보이는 한문 편지인 ‘척독’을 대상으로 하였다. 옛 문인들의 기지와 혜학이 담긴 편지 작품을 통해 학생들이 문학적 감상력을 키우고 창의적 글쓰기로 나아가도록 하였다.

‘교훈 중심의 편지 교육 방안’에서는 옛 문인들이 제자나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학문을 하는 자세와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는 한문 편지를 대상으로 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의 지표로 삼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사 검토 및 연구 방법	3
II. 편지의 개념과 교육적 가치	10
1. 편지의 개념과 특성	10
2. 현행 편지 관련 교육의 현황과 문제	17
3. 편지의 교육적 가치	25
III. 한문편지의 교육방안	34
1. 전달 중심의 편지와 실용적 글쓰기	35
1) 안부 편지 쓰기	37
2) 위로 편지 쓰기	47
3) 감사 편지 쓰기	54
2. 표현 중심의 편지와 문학적 감상	62
1) 진솔한 감정의 표현	65
2) 일상의 재발견과 표현	74
3) 사회·현실 의식의 표현	82
3. 교훈 중심의 편지와 인성 발달	88
1) 자의식의 형성	90
2) 고난 극복의 의지	96
3) 이타심의 발현	104
IV. 결론	111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1. 연구목적

본고는 편지의 쓰기·문학·인성 교육적 가치를 찾아보고, 옛 문인들이 쓴 한문 편지를 활용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보다 쉽게 글쓰기 활동에 접근할 수 있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글쓰기 목적에 따라 상대방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도록 돕는 글쓰기 교육 방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글쓰기 활동과 문학 작품의 감상을 통해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의 형성과 발달에 도움을 주는 인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교육 방안으로써 본고는 편지글 교육을 주목한다.

편지는 일상적인 글쓰기로 일기와 함께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글쓰기 방식 중 하나이다. 편지는 쓰는 사람(넓은 의미의 작가)과 읽는 사람(넓은 의미의 독자)의 의사소통 과정을 전제로 한다. 편지를 쓰는 사람은 쓰는 목적에 따라, 읽는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글쓰기 방식을 활용한다. 편지글을 통해 상대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호의에 대한 감사와 정중한 거절의 의도를 표현하기도 하며, 때론 상대방을 준열하게 비판하고 상대방에게 삶의 깨달음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편지는 학생들이 쉽게 글쓰기에 접근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글쓰기 방식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글쓰기를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는 가운데 남의 입장을 이해하고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열린 마음을 갖게 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바람직한 인성의 형성과 발달에 도움

을 줄 수 있다.

이러한 편지글 교육은 학생들에게 무조건 편지를 쓰라고 강요하는 것보다는 잘 쓴 편지의 사례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글쓰기 실태 및 문제점을 되돌아보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글쓰기 방식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훌륭한 편지글의 전범은 어디에서 가져 올 수 있을까? 본고는 학생들에게 유용한 옛 문인의 한문 편지글을 소개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옛 문인들은 자신의 사상과 생각, 감정 등을 그들의 편지에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읽는 상대를 배려하는 글쓰기를 하였다. 표현 면에서도 자신의 생각과 진실한 감정을 체계적이고 분명하게, 때로는 문학적으로 표현하여 한 편의 문학작품으로도 전혀 손색이 없다. 옛 문인들은 이러한 편지글을 통해 정신적 벗과 정서적 교류를 하였고, 제자와 자식의 인성 교육도 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옛 편지가 가지는 이러한 인성 교육의 측면에 주목하여 옛 문인들의 한문 편지글의 감상을 통해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 형성과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더불어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상대에게 명확하게 표현하며, 상대를 배려하는 격의 있는 글쓰기로 나아가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한문 편지 자료 중에서 본고에서는 ‘전달 중심의 편지’, ‘표현 중심의 편지’, ‘교훈 중심의 편지’를 대상으로 하여 편지 교육 방법을 살펴볼 것이다. 전달 중심의 편지글을 통해 학생들이 쓰는 목적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글로 나타내도록 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글을 쓰도록 한다. 이러한 학습의 바탕에서 옛 문인들의 표현 중심의 편지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문학적으로 보다 풍부하게 글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교훈 중심의 편지글을 통해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

가는 법을 배우고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참교육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2. 연구사 검토 및 연구 방법

본고와 관련 있는 선행 연구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편지쓰기를 교육 방안으로 활용한 연구물, 그리고 다음은 조선시대 문인의 한문 편지를 연구한 연구물이 그것이다. 편지쓰기를 교육 방안으로 활용한 연구물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편지를 글쓰기 지도 방안으로 활용한 경우와 인성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활용한 경우이다.

편지를 글쓰기 지도 방안으로 활용한 경우를 살펴보면 우선 박영복(1981)은 그의 연구에서 편지쓰기를 통해 학생들의 글짓기에 대한 흥미가 증가되고 작문 능력이 현저히 향상되었음을 밝혔다. 이후의 편지쓰기와 관련된 논문들 또한 편지쓰기가 갖는 이러한 글쓰기 측면의 교육적 의의를 시사하고자 하였다.

서희석(1989)은 글짓기 학습의 부진 요인을 쓰고자 하는 의욕의 결여, 쓸 것이 없다는 사고의 빈곤, 표현 능력의 부족으로 지적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쓰기 방법으로 편지쓰기를 활용하였다. 편지쓰기를 통해 학습자들은 성취감이나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쓰기에 대해 흥미도 느끼게 되어 그 흥미가 다음 글쓰기에도 바람직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편지쓰기가 갖는 인간 형성의 기능이나 인간 회복의 기능에도 아울러 주목하고자 하였다.

이지연(2004) 또한 「즐거쓰기를 통한 작문 지도 방안 연구」에서 글쓰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쓰기 활동을 어렵고 재미없어하는 점에 착안하여 ‘즐거쓰기’를 통한 작문 지도 방안을 연구하였다. 작문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작문능력의 향상에 앞서 작문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작문을 할 때의 부담감, 즉 작문 스트레스의 요인을 찾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편지쓰기는 아이들이 비교적 쉽게 글쓰기에 접근할 수 있고, 편지가 갖는 상호작용성이 쓰기 활동의 강화와 글쓰기 능력의 향상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편지쓰기의 인성 교육적 측면에 주목한 논문으로는 「편지놀이를 통한 정주고 받는 글짓기 교육」이 있다. 유길(1983)은 이 논문에서 메말라가고 멀어만 가는 우리의 옛 인정을 되찾는 면에서나 글짓기 능력을 키워나가면서 사물을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하는 눈을 뜨게 해 주는 면에서나 일반화해볼만한 교육활동이라고 편지쓰기의 인성 교육적 의의를 밝히고 있다.

박무진(1999)은 「정서적 교감을 위한 편지쓰기가 아동의 자아개념 및 인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부모와의 편지쓰기를 통해 아동의 인성 발달과 문장 표현력 신장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부모와의 편지 대화를 통한 정서적 교감은 자녀의 바람직한 인성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자녀의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형성과 발달을 위하여 부모로 하여금 삶의 본모습을 보여주고 자녀들의 타고난 자질과 능력에 대한 신념과 긍지를 가져 자녀와 더 깊은 유대감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이상의 논문들을 살펴볼 때, 편지쓰기는 학습자로 하여금 글쓰기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여 쉽게 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편지는 받는 사람과 쓰는 목적이 뚜렷한 글이기 때문에 알맹이 있는 글을 쓰기 위한 바탕글이 될 수 있다. 편지쓰기를 통해 향상된 쓰기 능력은 다른 종류의 글도 잘 쓸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고, 쓰기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어 학습자에게 성취감과 자신감을 줄 수 있다.

편지는 일정한 형식이 있고 받는 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편지쓰기를 통해 학습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또

한 편지쓰기를 통한 정서적 교감은 바람직한 인성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즉 편지쓰기는 글쓰기 교육의 측면에서나 인성 교육적 측면에서 그 교육적 가치가 큰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2장에서 편지 교육의 교육적 의의를 밝히고, 3장에서 한문 편지의 교육적 활용방안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조선시대 문인들의 한문 편지를 연구한 연구물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시대 양반들의 대표적인 글쓰기는 문학적인 글인 시문詩文과 실용문인 편지였다. 그런데 편지는 역사 연구, 사상사 연구, 문학 연구를 위한 보완 자료로 내용적인 요소가 일부 이용되어 왔을 뿐, 인간을 제외하고 한문 편지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¹⁾ 이는 한문 편지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이 적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자료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워낙 어려웠기 때문이다. 우선 한문 편지는 문집에 수록된 것 이외에는 상당수가 초서(草書)로 쓰여 글자 판독이 너무 어렵다. 조선시대 양반들은 초

1) 지금까지 인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상당히 진척된 상태이다. 연구 논문을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金一根, 「이조어필언간집」, 『국학자료집』 2, 신홍출판사, 1959.
 金一根, 「秋史家の 한글 편지들」(상), 『문학사상』 114, 1982.
 金一根, 「秋史家の 한글 편지들」(하), 『문학사상』 115, 1982.
 金一根, 『諺簡의 연구』-한글서간의 연구와 자료집성-, 건국대학교출판부, 1986.
 金一根, 「諺簡에 투영된 秋史의 人間論」, 『탐라문화』 6(추사김정희특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7.
 김철웅, 「淸州北一面順天金氏出土簡札의 판독문」, 『호서문화연구』 13, 1995.
 朴堯順, 「尹善道 諺簡札에 대하여」, 『승전어문학』 3, 승전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74.
 申貞淑, 「한국 전통사회의 內簡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37:38(국어국문학회), 1979.
 안승준, 「점필재 김종직이 어머니와 아내로부터 받은 편지」, 『문헌과 해석』, 가을(통권 5호), 문헌과 해석사, 1998.
 李珖鎬, 「언문간찰의 형식과 표기법」, 『정신문화연구』 6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李秉岐, 『近朝內簡選』, 국제문화관, 1948.
 이상호, 「국어생활사의 관점에서 본 인간의 특성에 대한 고찰」, 『규장각』 23, 서울대학교규장각, 2000.
 이승희, 「奎章閣 所藏本 純元王后 한글 편지의 고찰」, 『규장각』 23, 서울대학교규장각, 2000.
 임홍민, 「필사본 한글간찰의 해독과 문장 분절」, 『정신문화연구』 6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崔文煥, 「秋史 金正喜의 인간 연구」, 건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황문환, 「진주하씨묘 한글 편지에 나타난 경어법」, 『성균어문연구』 29(성균대국어국문과), 1993.
 황문환, 「16-17세기 인간의 상대경어법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6.

서로 편지 쓰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따로 배우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다. 그리고 일반 문학적인 글에는 잘 쓰이지 않는 어휘, 벽자, 관용적 투식, 상하준비에 따른 용어의 차별적 표현 등이 한문 편지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²⁾

본고는 조선 시대 사대부 문인들이 일상에서 주고받은 한문 편지를 중심으로 교육적 가치 및 교육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문 편지 역시 좋은 편지 교육의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한문 편지로 자료를 정한 것은 한문 편지가 많은 교육적 의의가 있음에도 자료 접근의 어려움 때문에 교사나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없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문 편지의 수신자와 송신자가 다양한 것에 비해 국문 편지는 그 주체가 여성에 한정되어 있으며, 한문 편지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에 비해 국문 편지는 실용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주체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고는 한문 편지를 교육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옛 문인들의 초서 편지를 번역한 단행본으로는 『옛 문인들의 草書 간찰』³⁾과 『세 분 선생님의 편지글』⁴⁾, 『조선시대 문인들의 초서 편지글』⁵⁾이 있어서 옛 문인들의 편지의 실제 모습과 국역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작품이나 작가에 대한 설명이 소략하여 일반 독자가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보인다.

개인 작가의 편지가 단행본으로 소개된 것은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⁶⁾와 이황과 기대승이 주고받은 편지⁷⁾가 있다. 정약용은 신유사옥에 연루되

2) 김효경, 「18세기 간찰교본 《簡式類編》 연구」, 『藏書閣』 제 9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

3) 한국고간찰 연구회 편역, 『옛 文人들의 草書 簡札』, 도서출판 다운샘, 2003.

4) 임재완 편역, 『세 분 선생님의 편지글』, 도서출판 다운샘, 2001.

5) 임재완 편역, 하영희 교열, 『조선시대 문인들의 초서 편지글』, 도서출판 다운샘, 2003.

6) 정약용 지음, 박석무 편역,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창작과 비평사, 2000.

정약용·정약전 저, 정해림편역, 『다산서간정선』, 현대실학사, 2002.

어 40세 때부터 18년 동안 유배생활을 하였다.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창작과 비평사, 2000)는 그가 유배지에서 가족과 친지에게 썼던 서간문 모음집으로서 가족의 중요함, 사제간의 정다운 의리, 독서와 집필의 지향점, 삶의 방향 등 다산의 인품과 철학사상 및 문학사상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특히 아들들에게 보낸 것이 많은데, 다산의 이러한 편지를 인성 교육적 측면에서 살펴본 논문이 많다.⁸⁾ 다산이 아들들에게 전했던 여러 교훈들 중, 오늘날에도 가치 있는 것들을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것은 학생들의 인성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퇴계와 고봉, 편지를 쓰다』(소나무, 2003)는 사단칠정 논쟁의 주역인 퇴계 이황과 고봉 기대승의 편지 모음집으로 두 사람이 나눈 편지 중에서 일상적인 얘기를 담은 편지(1부)와 학문적 쟁점을 다룬 편지(2부)를 아울러 신고 있다. 편지글을 통해 영혼의 교류를 했던 두 학자의 생활과 사상을 엿볼 수 있다.

논문으로는 최근 척독(尺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척독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안대회(2001)⁹⁾는 「조선후기 소품문의 성행과 글쓰기의 변모」에서 조선후기 소품문의 특징을 살피면서, 이덕무의 척독 작품을 예로 다루기도 하였다. 김풍기(2001)¹⁰⁾는 「조선 중기 고문의 소품문적 성향과 허

7) 김영두 편역, 『퇴계와 고봉, 편지를 쓰다』, 소나무, 2003.

1부는 5개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으며 연대순을 따랐다. 첫 만남의 감회에서부터 주변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 처세의 어려움, 시에 대한 감상, 관직과 벼슬에 대한 생각, 질병과 운명, 귀향과 죽음 등 온갖 주제에 대한 두 사람의 심증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2부는 학문을 논한 편지들로서 사단칠정에 대한 논변이나 태극의 개념, 상례와 제례, 기타 왕실의 전례 등을 논하였다.

8) 다산이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를 인성 교육적 측면에서 연구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김민옥, 「정약용의 가정교육에 관한 연구 : 두 아들에게 보낸 서간문을 중심으로」, 경인교대 교육대학원, 2005.

박규호, 「다산 정약용의 인간교육론」, 경상대 교육대학원, 2004.

유정희, 「다산의 자녀교육 연구 : 가계와 서간을 중심으로」, 단국대 교육대학원, 1991.

황영오, 「다산의 인성교육 연구」, 인하대 교육대학원, 2000.

9) 안대회, 「조선후기 小品文의 성행과 글쓰기의 변모」, 『한국한문학회연구』 제28집, 한국한문학회, 2001.

10) 김풍기, 「조선 중기 고문의 소품문적 성향과 허균의 척독」, 『민족문화연구』 35호, 고대 민족문화연

균의 척독」으로 척독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제기했고, 노경희(2002)¹¹⁾의 「마음으로 쓰는 편지-허균의 짧은 편지글」도 척독 문학에 대한 검증하는 관심을 반영했다. 척독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진 작가로는 허균¹²⁾과 박지원¹³⁾, 이덕무¹⁴⁾가 대표적이다.

척독과 관련된 논문들은 척독의 장르적 특성을 ‘서(書)와 구별되는 단소정치(短小情致)한 예술양식으로 함축과 핵심을 찌르는 흡인력, 그리고 여운을 남기는 강한 서정성을 바탕으로 한다’고 보고, 척독 작품들이 갖는 내용적 · 수사적 특성들을 살피고자 하였다. 척독은 단순히 논변이나 소식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던 실용의 성격에서 벗어나 문예적인 산문의 성격을 지닌 것이다. 예술적 깊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심오한 철학까지 담고 있고, 작가만의 독특한 개성을 유감없이 드러내는 한 편의 문학작품이다. 따라서 훌륭한 척독 작품을 선별하여 감상하도록 하는 것은 학습자의 문학적 감상력을 높이고, 학습자가 창의적이고 문학적인 글쓰기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 위의 연구물을 기반으로 하여 옛 문인들의 구체적인 편지 작품을 활용하여 중등과정 학생들의 효과적인 글쓰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

구원, 2001.

11) 노경희, 「마음으로 쓰는 편지-허균의 짧은 편지글」, 『문헌과 해석』, 문헌과 해석사, 2002. 9. 13 발표요지.

12) 허균의 척독에 관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김성진, 「許筠의 尺牘에 대한 一考察」, 『한국한문학회』 제32집, 한국한문학회, 2003.

13) 박지원의 척독에 관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심경호, 「박지원과 이덕무의 戲文 교환에 대하여」, 『한국한문학회연구』 제 31집, 한국한문학회, 2003.
안대회, 「더이상 짧을 수 없는 편지-박지원의 척독소품(尺牘小品)」, 『문학과 경계』, 문학과 경계사, 2001.
정민, 「燕巖 尺牘小品의 문예미」, 『한국한문학회연구』 제31집, 한국한문학회, 2003.

14) 이덕무의 척독에 관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권정원, 「靑莊館 李德懋의 尺牘 研究」, 『동양한문학회연구』 제15집, 동양한문학회, 2001.
홍인숙, 「李德懋 척독 연구-‘내면’, 혹은 ‘사적 자아’의 발견-」, 『한국한문학회연구』 제33집, 2004.

적을 달성하기 위해 II장에서는 현재 편지가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교육되고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그 대상을 7차 교육과정의 국어교과서(7~10학년)와 문학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으로 정하고, 국어교과서와 문학교과서에 실려 있는 편지 관련 학습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작품의 학습 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학생들은 그 작품을 통해 어떤 학습활동을 하는지를 알아보겠다. 또한 편지의 개념과 성격 등 편지의 일반적인 이론과 교육 자료로서 옛 문인들의 한문 편지가 지니고 있는 가치를 살펴볼 것이다. III장에서는 구체적인 한문 편지 작품의 감상을 통해 중등과정의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의 형성과 정서 함양을 돕는 교육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학생들이 여러 가지 글쓰기 목적에 따라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글쓰기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까지 나아가고자 한다.

II. 편지의 개념과 교육적 가치

1. 편지의 개념과 특성

편지의 교육적 가치와 한문 편지를 활용한 편지 교육 방안을 살펴보기에 앞서 편지의 개념과 특성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옛 문인들은 어떠한 글을 편지라고 했으며, 언제부터 편지가 쓰이기 시작하여 명칭과 그 성격에서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를 밝히는 것은 앞으로의 논의의 바탕이 될 것이다. 편지가 갖는 여러 특성들은 편지의 교육적 가치가 되기도 한다.

1) 편지의 개념과 연원

서간류는 예로부터 서사 공구의 발달에 따라 명칭이 다양하였다. 죽간에 쓴 것을 ‘간(簡)’이라 하고, 비단에 쓴 것을 ‘첩(帖)’이라 하며, 목편에 쓴 것을 ‘전(箋)’이라 하고 봉투를 사용한 것을 ‘함(函)’이라 한다. 기러기가 서신을 전한다는 고사에서 서신을 ‘홍(鴻)’이라고도 하며, 척독(尺牘)이니 척소(尺素)니 척한(尺翰)이니 하는 명칭이 있다. 본래는 군주에게 아뢰는 것이나 친구 사이에 왕복하는 것을 모두 서신이라고 하였다가, 평행 문자만 서신이라고 하게 되었다.¹⁵⁾

서간류도 많은 다른 산문류와 같이 《상서》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하은주(夏殷周) 삼대(三代)에는 정치 행정 업무가 그다지 많이 않아 서신을 포괄하는 문장이 아주 적었다. 그런데 춘추시대에 열국이 분쟁하면서 정무가 나날이 번잡해지고 왕래하는 사절이 많아진데다, 초빙과 방문의 예를 행하여 서신의 왕

15) 陳必祥 著, 沈慶昊 譯, 「한문문체론」, 이회문화사, 2001.

래도 급속히 빈번하게 되었다. 그리고 양한(兩漢) 시기에는 서간류 산문이 현저하게 발전하였다. 그 시기 서간류 산문의 특징은 개인의 사상이나 감정을 교류하는 도구로까지 변화하였다는 점이다. 가장 단적인 예가 널리 알려진 사마천(司馬遷)의 <보임안서(報任安書)>이다. 이어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동한 시기에 발명된 종지와 붓이 보편화되면서 서간 작성이 더욱 편리해져 대대적으로 확대되어 작가층이 두터워졌다. 더욱이 산문이 가장 빛을 발한 당송(唐宋) 시기에 크게 발전하였다.

서간류는 산문으로 짓는 것이 일반적이며, 분량에도 대체로 제한이 없었다. 분량 면에서 보면, 서(書)는 길거나 짧거나 상관없이 없으나, 간(簡)이나 첩(帖)들은 일반적으로 짧다.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고전수필 분야에서 서간류만큼 다양한 내용을 담는 체재는 없다. 안부를 묻거나 소식을 전하는 가벼운 내용도 있고, 학문이나 정치적 견해를 피력하는 내용도 있으며, 훈계하는 내용도 있다. 현대에도 편지의 내용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는 것처럼, 고대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를테면 친서(親書)같이 두 성씨 간에 혼인을 맺을 때 쓰이는 문장도 이에 속한다. 시대에 따라 내용의 범위가 다르기는 하나, 당송 이후 그 내용이 이미 모든 분야에 확대되었다. 연원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당송 이후에는, 군국대사의 논의나 정치적인 주장은 물론, 도리에 대한 의론 · 스승을 논함 · 천거 · 시문의 평 · 학술 논의 · 여러 가지 기술 · 의약과 방사方士 등에 이르기까지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 없다.¹⁶⁾

편지의 양식은 시대에 따라 여러 가지 변화를 겪었다. 당나라 때는 주장(主將)이 막좌(幕佐)에 보내는 기밀 서신인 ‘위곡(委曲)’, 하급 신하가 정사당(政事堂)에 올리는 ‘당장’과 같은 문체가 과생하였으며, 공문서에 별도로 붙이는 사신 형태의 ‘별지(別紙)’가 발달하였다. 그러다가 송대에 이르러 문집에 ‘척독(尺牘)’이란 표제가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명나라 말에 척독은 ‘서(書)’와

16) 편지의 연원에 관한 내용은 권호, 『고전수필개론』(동문선, 1998)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구별되어, 단소정치(短小精緻)한 예술 양식으로 부각되었다. 특히 원광도의 척독은 ‘진(眞)’·‘신(新)’·‘취(趣)’·‘韻(韻)’ 등의 심미적인 특성을 담아낸 것으로 평가된다. 그 뒤 육운룡은 『취오각평선소찰간소인(翠娛閣評選小札簡小引)』에서 ‘척(尺)’자와 ‘촌(寸)자가 갖고 있는 표면적 의미를 부각시켜 척독의 ‘단소(短小)’한 특성을 더욱 강조하고, 만명 척독이 ‘염기(斂奇)’, ‘염예(斂銳)’, ‘염교(斂巧)’, ‘염광(斂廣)’한 특성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¹⁷⁾

‘척독(尺牘)’은 말 그대로 짧은 편지를 지칭한다. 문집의 편제에서는 ‘서(書)’와 비슷한 성격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명나라 이후 소품문의 발흥과 함께 일정한 차별성을 지닌 것으로 취급되었다. 편지의 편차를 제대로 갖추면서 비교적 길게 쓰는 편지를 ‘서(書)’라고 한다면, 의례적인 인사나 복잡한 내용과는 별도로 간단한 연락이나 감회를 적은 짧은 편지를 ‘척독(尺牘)’이라 할 수 있다. 길이의 장단에 따라 ‘서’와 ‘척독’이 구별되기는 하지만, 그 길이를 어느 정도에서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모호하다. 명대에 오면 소품문¹⁸⁾을 쓰는

17) 趙樹功, 『中國尺牘文學史』, 河北人民出版社, 1999.

심경호, 앞의 책, 106~107쪽.

18) 18·9세기에 성행한 소품문은 조선사회의 지주인 사대부계층이 수백 년 동안 지켜오던 古文이라는 산문양식을 해체하면서 하나의 글쓰기 방법으로 등장하여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새로운 산문양식이었다. 소품문은 기존의 권위적 문학양식을 파괴하는 색다른 문체를 실험하고, 새로운 감성과 소재를 다룸으로써 산문사에 큰 변화를 몰고 왔다. 문장은 길이가 짧고, 口語를 많이 사용하며, 고문 특유의 작법을 벗어났다. 소재 면에서도 인간의 소외 현상이나 개인의 비밀스런 내면과 시정생활, 예술적 체험이나 일상생활의 시시콜콜한 소재를 채택하기를 좋아하였다. 이지적이고 교훈적, 관념적 내용의 고문과는 달리 소품문은 감성적 글쓰기를 지향함으로써 기왕의 산문과는 현저하게 다른 특색을 띠었다. 작자의 독특한 주관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색깔과 음향, 정조를 보임으로써 소품문은 대체로 詩情이 풍부한 글이 되었다. 절제를 미덕으로 하는 조선의 사대부문학에서 자기 고백적 산문의 출현은 18·9세기 산문영역의 뚜렷한 한 특징으로 내세울 수 있다.

18·9세기 소품문의 성행은 서간문의 창작에도 커다란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장편의 학술토론문, 政論書, 청탁서, 안부를 묻는 내용에서 벗어나 情致가 풍부하고 작가의 性靈이 담긴 小幅의 서간을 즐겨 창작하였다. 서간문 가운데 비교적 내용이 가볍고 양이 적은 서간문을 尺牘이라 부르는데, 간결하고 서정성이 넘치는 척독소품을 일상의 시시콜콜한 생활소재와 예술과 인생에 대한 소회를 잘 담아낼 수 있는 문체로 애용하였다.

(안대회, 「조선후기 小品文의 성행과 글쓰기의 변모」, 『한국한문학연구』 제28집, 한국한문학회, 2001.)

사람들이 척독을 선호하게 되고, 이들은 과거의 짧은 편지에서 새로운 글쓰기의 전통을 발견하게 되었다. 어느 시대에나 짧은 편지는 있었지만, 그것에 미학적 혹은 문학적 의미를 본격적으로 부여하게 된 것은 명대의 문인들에 의해서라고 할 수 있다.¹⁹⁾

우리나라의 경우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는 별지(別紙)의 형태로 이기설을 논하거나, 서신에서 상대방의 서신 내용을 절록(節錄)하면서까지 장문의 형태로 의론을 전개하는 방식이 주요한 의미를 지녔다. 그러다가 18세기에 이르러 참신한 척독 문체가 널리 채용되기에 이른다. 그보다 앞서 허균의 척독이 나왔지만, 그의 척독 창작은 문학사조를 형성하지는 않았던 듯하다. 영·정조에 이르러 비로소 여러 지성인들이 척독으로 심경을 서정적, 해학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을 발달시켰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편지의 특성과 형식

서간은 개인 사이에 오간 다양한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예나 지금이나 그 내용과 대상에 따라 나름의 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서간류 문장의 특성으로 어떤 특성은 다른 체재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²⁰⁾

첫째, 서간은 개별성을 가지고 있다. 서신은 개인에게 주는 것으로 특정한 목적에 의해 지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글에 비해 당연히 직접적인 성격과 개인적 특징을 갖는다. 다시 말해서 서신은 피차가 대면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과 같아, 다른 문장에서보다 더욱 분명하게 그 작가의 사상과 개성

19) 허균 지음, 김풍기 옮김, 『허균 산문집-누추한 내방』, 태학사, 2003, 20~23쪽.

20) 편지의 특성에 관한 내용은 권호, 『고전수필개론』(동문선, 1998)와 陳必祥 著, 沈慶昊 譯, 「한문문체론」(이회문화사, 2001)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 기질 · 모습 등을 살필 수 있다. 따라서 작품성이 높은 서간문은 후세의 사람들에게 감상되고 학습될 뿐만 아니라, 그 작가의 일생 · 사상 · 개성 등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한다.

둘째, 서간은 진실성을 갖추고 있다. 서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잘 아는 사이에 오가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신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감이 진실하다. 즉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한다. 이러한 점은 서간류 문장에서 사회현실과 작자의 삶 · 생활 그리고 사상을 보다 잘 이해하게 한다. 이를테면 조비(曹丕)나 조식(曹植)을 연구할 때 그들의 시와 문장도 중요하지만, 서간에서 그들의 문학관과 창작사상에 관한 자료를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서간류에는 서정성이 농후한 작품이 많다. 잘 아는 가까운 사이에 오가는 서간은 개인의 감정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 내용이나 대상에 따라 또 표현 방법이 서사이거나 의론이거나를 막론하고,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서정성(抒情性)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넷째, 서간은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 편지글은 상대에게 예의를 갖추면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을 지니고 있다. 편지는 상하의 준비 관계가 엄격하고 예의를 중시하던 시절에는 매우 복잡하고도 엄격한 형식의 준수를 요구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편지글은 현대적 감각에 맞게 매우 자유로운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굳이 옛날의 편지 형식을 준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아무리 자유로운 형식을 취한다 해도 상대에게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예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편지글이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편지의 형식²¹⁾은 크게 앞부분(전문前文), 중간부분(사연辭緣), 끝부분(결문結

21) 편지의 형식에 관한 내용은 서울시립대학교 교양교재편찬위원회, 『대학인의 글쓰기』(새문사, 1999)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文)으로 나눌 수 있다. 전문은 서두(序頭) 혹은 서필(序筆)이라고도 하는데, 기필(起筆), 시후(時候), 문안(問安), 안부의 인사, 사례(謝禮) 등이 나온다. 사연(辭緣)은 편지의 중심내용 부분이며, 결문(結文)은 결미(結尾)의 인사말이 나온다. 그리고 원문에 덧붙이어 적거나 뒤에 부가하여 쓰는 추신(追信) · 부기(附記)가 있다.

기필은 편지받을 사람을 호칭하는 것으로 기수(起首), 두어(頭語)라고도 한다. 예전에는 편지의 머리에 배계(拜啓), 근계(謹啓), 숙계(肅啓) 등의 격식어를 자주 썼으며, 편지 앞에 문안, 시후, 안부, 사례 등을 생략하고 바로 용건을 쓸 경우는 ‘산만(刪蔓)’, ‘제번(除煩)하옵고’, ‘관생(冠省)’, ‘관략(冠略)’ 등의 말을, 같은 용건에 대하여 재차 편지를 낼 때는 ‘재계(再啓)’, ‘추계(追啓)’ 등의 말을 사용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편지글에는 이런 격식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시후란 계절 인사를 말하는 것이다. 내용은 계절이나 날씨 등 자연의 변화나 세시풍속 등 상황에 알맞게 쓰면 된다. 자연이나 세시의 변화는 사람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러한 문구를 통해 서로의 공감과 관심을 표현할 수 있다.

문안은 상대방의 근황과 안부를 묻는 것으로 편지글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예절을 갖추어야 할 부분이다. 보내는 사람의 따스한 정이 흘러넘치도록, 상대에 대한 애정 어린 염려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써야 한다. 이때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현재 상황이나 건강 상태 등도 상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자신이 상대의 안부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대방 역시 이쪽의 안부를 알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연은 편지의 본문을 구성하는 것으로 용건이요 사무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편지를 쓰게 된 목적에 따라 축하, 위문, 감사, 사과 등의 내용을 적는다. 사연은 충분히 자기의 용건이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을 간명하게 전달

하는 것이 좋다.

결미 인사는 이를테면 작별 인사로서 편지를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떠나는 인사를 하는 부분이다. 대체로 간략하면서도 단정한, 그러면서도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작별 인사가 끝나면, 예전에는 ‘여불비상서(餘不備上書)·불비상서(不備上書)·불비배례(不備拜禮)·경백(敬白) 등의 결사(結詞)를 썼으나 이제는 이런 말은 보기 힘들다.

결사 다음에는 날짜와 서명을 한다. 서명의 경우, 손위 사람에게겐 반드시 자기 성명 세 자를 다 적고, 그 아래에 ‘올림’, ‘배(拜)’, ‘재배(再拜)’, ‘배상(拜上)’, ‘상서(上書)’ 등의 말을 써 넣는다. 연월일과 서명을 모두 끝내고 나서 본문에 빠뜨린 말이 있다든가 또는 거듭 확인이나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경우엔 ‘추신(追伸)·추백(追白)·재백(再白)·추고(追告)’ 등을 쓰고 그 말을 적어 넣는다.

편지 곁봉에는 수신인의 주소 성명을 쓴다. 봉투의 오른쪽 위에서 한 자 정도 내려서 상대방의 주소를 쓰고, 상대방의 성명은 주소보다 한두 자 내려서 봉투 중앙에 위치하도록 적는다. 성명 밑에는 반드시 경칭을 붙인다. 친한 사이라면 형(兄)·인형(仁兄)·대형(大兄)·학형(學兄) 등을 쓰며, 사제지간이면 선생(先生)·안하(案下)·족하(足下) 등을 쓴다.

이러한 편지의 형식은 오늘날 많이 간소해졌지만 상대방에 따라 일정한 형식과 예의를 갖추어 적어야 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은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전 산문의 서(書)라는 문체는 일상생활에서 주고받는 편지는 물론, 논문 형식의 글이나 공문서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개진하는 글은 모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조선시대 사대부 문인들이 일상에서 주고받았던 사적인 편지를 대상으로 하여 한문 편지의 교육적 가치와 교육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현행 편지 관련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이 장에서는 현재 편지가 중등과정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교육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겠다. 현재 중학교 국어과 과목인 ‘국어·생활국어’와 고등학교 국어과 과목인 ‘국어(상)·(하)’, ‘문학’교과서에서 학생들이 어떤 편지 작품을 배우고, 그 작품을 통해 하는 학습활동 및 학습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우선 국민공통교육과정(7학년~10학년)의 국어과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편지 작품이나 편지와 관련된 학습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년·학기 · 과목	단원명·수록작품/ 일기관련학습	대단원 학습목표	관련 학습내용
7·1 국어	2. 읽기와 쓰기 (1)마음으로 쓰는 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을 읽고 글쓴이의 생각과 내 생각을 비교할 수 있다. · 글을 읽고 자기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다. 	
7·2 생활국어	1. 생활과 글쓰기 (1)생활 속의 글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을 자주 쓰는 습관을 지닌다. · 쓰기와 말하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 수 있다. · 영화를 소개하는 글을 쓸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우편을 보내 본 경험 떠올리기 · 소품에 대해 건의하는 글을 쓰고, 담임선생님께 전자우편 보내기
8·2 국어	1. 작가와 작품 (1)옥중에서 어머니에게 올리는 글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의 삶이 작품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반영됨을 안다. · 작품 속에 반영된 작가의 생각을 파악하며 읽을 수 있다. 	
9·1 생활국어	5. 독자와 글쓰기 (1)독자 고려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쓰기에서 독자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안 	

	(2)독자 고려하여 글쓰기	다. · 독자를 고려하여 글을 쓰려는 태도를 지닌다.	
10·1 국어(상)	5. 능동적인 의사소통 (1)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 읽기와 쓰기가 의사소통 행위임을 이해한다. · 글을 매개로 집단과 집단, 사회와 사회가 시대를 초월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 작가, 독자, 문학 작품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여 문학 작품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이해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문학작품으로서 편지는 8학년 2학기 ‘국어’에서 소설가인 심훈이 옥중에서 어머니에게 쓴 편지와 10학년 1학기 ‘국어(상)’에서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 이렇게 두 편이 다루어지고 있다. 그 외에 국어과 교과서에서 편지 관련 학습은 글쓰기 교육의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편지 쓰기를 통해 생활 속에서 글을 쓰는 습관을 기르고, 독자를 고려한 글쓰기의 중요함을 환기시키고 있다.

각각의 학습활동과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년·학기 · 과목	단원명·수록작품/일 기관련학습	학습활동
7·1 국어	2. 읽기와 쓰기 (1)마음으로 쓰는 편지	(내용학습) 편지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다음 물음에 답해 보자. 1. 이 편지를 쓴 학생의 고민을 간단하게 말해 보자. 2. 이 편지를 쓴 학생은 어떤 마음으로 아저씨께 편지를 보냈을까?

		(목표학습) 친구의 입장에서 내 생각을 담아 그 학생에게 답장을 써 보자.
7·2 생활국어	1. 생활과 글쓰기 (1)생활 속의 글쓰기	(활동3) 다음 글을 읽고, 현우처럼 전자 우편을 보내거나 학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보자. 1. 현우가 선생님께 전자 우편을 보낸 까닭은 무엇인가? 현우처럼 선생님께 소풍에 대해 건의하는 편지를 써 보자. (보충·심화1) 다음 글을 읽고, 호용이의 입장이 되어 어머니께 편지를 써 보자. (보충·심화3) 다음 글을 읽고, 이 글을 쓴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1. 위 글을 쓴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는가? 2. 이 글을 쓴 사람에게 전자 우편을 보내 보자.
8·2 국어	1. 작가와 작품 (1)옥중에서 어머니께 올리는 글월	(내용학습) 1. 작가의 처지가 드러난 부분을 모두 찾아보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작가의 삶의 모습을 정리해 보자. 2. 옥중에서 사람들은 임종을 맞이한 어떤 노임을 위해 일제히 노래를 불렀다. 사람들은 왜 노래를 불렀으며, 노래에는 어떤 염원이 담겨 있었을지 생각해 보자. (목표학습) 작가가 쓴 다른 두 편의 작품을 읽고, 작가의 삶의 모습과 작품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자.
9·1 생활국어	5. 독자와 글쓰기 (1)독자 고려하기 (2)독자 고려하여 글쓰기	(활동2) 다음의 두 편지글을 읽고, 독자를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에 따라 글의 내용과 표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자. 1. 여러분이 아빠라면 글(가)와 글(나)의 두 편지 중에서 어느 편지가 마음에 들겠는지 말해보자. 그리고 그 이유도 말해 보자. 2. 글(가)와 글(나)의 편지 내용을 아래의 표에 각각 정리해 보자.

		<p>3. 글(가)와 글(나)의 표현상의 특징을 아래의 표에 정리해 보자.</p> <p>(보충·심화1) 다음 글을 읽고, 독자를 고려하지 못한 표현을 찾아보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러분이 푸름이라면, 위의 답신을 받고 기분이 어떠했을까 말해 보자. 2. 푸름이가 받은 답신에서 독자를 고려하지 못한 표현을 찾아보자. 그리고 그 부분을 다시 써 보자. <p>(보충·심화3) 다음 글을 읽고, 독자를 고려하여 편지를 써 보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은지의 메모로 보아, 동혁이를 대하는 은지의 태도가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 보자. 2. 동혁이는 자신의 입장을 은지에게 설명하는 편지를 쓰려고 한다. 은지의 처지를 고려하면서, 동혁이의 입장이 되어 편지를 한 편 써 보자.
<p>10·1 국어(상)</p>	<p>5. 능동적인 의사소통 (1)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p>	<p>(혼자하기1) 이 글은 편지글이다. 누구에게 왜 쓴 글인지 말해 보자.</p> <p>(함께하기2) 필자는 어떤 이유에서 ‘과일·채소·약초를 재배하도록’ 권장하고 있는지,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든 예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p> <p>(혼자하기1) 이 글을 쓸 당시 정약용이 처해 있던 상황은 어떠했는지 조사하여 발표해 보자.</p> <p>(혼자하기2) 이 글은 약 200년 전에 쓰여진 글이다. 이 글이 현대인에게도 의미 있는 가르침을 주는지 말해 보자.</p> <p>(함께하기3) 아들의 입장에서 이 편지에 대한 답장을 써 보자.</p>

대부분의 ‘학습 활동’이 편지를 쓰는 사람의 상황을 유추해 보고, 어떠한 목적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지 묻고 있다. 이러한 학습은 학습자가 작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글을 쓰는 목적에 따라 글쓰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편지를 받는 사람이 어떠한 기분이 들 것인지를 물음으로써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하고 배려하는 글쓰기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본고가 지향하는 편지 교육의 목적과도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과서에 실려 있는 편지의 예가 다양하지 못하고 편지가 갖는 인성 교육적인 측면은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다음은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의 편지 작품 수록 양상을 살펴보겠다. 현재 7차 교육과정 문학교과서 18종²²⁾을 살펴 본 결과, 총 2종의 교과서에 3편의 한글 편지-선조가 옹주에게 쓴 편지와 혜경궁 홍씨가 쓴 편지, 어떤 부인이 이웃 부인에게 쓴 편지가 실려 있었다. 다른 장르에 비해 상당히 적은 수로, 이는 편지글이 가지는 문학적 의의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편지는 개인의 일상을 적은 실용적인 글로, 다른 문학 작품에 비해 그 문학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되기 쉽다. 하지만 편지글 중에는 다른 문학 작품 못지않게 높은 문학성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적 가치 또한 높은 작품이 많다. 따라서 문학성이 높고 교육적으로 유용한 편지 작품을 찾아 소개하고 학생들이 감상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들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편지 작품과 단원명, 학습목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출판사	대단원 · 소단원	수록작품	학습 목표
(주)한국교육미디어	Ⅲ-4.무형식의 형식	선조의 내간, 혜경궁 홍씨의	1. 수필의 일반적인 특성을 이해한다.

22) 7차 교육과정 18종 문학교과서 : 천재교육, 디딤돌, 금성, 두산, 중앙교육진흥연구소, 민중서림, 교학사, 문원각, 블랙박스, 상문연구사, 한교, 지학사, 대한교과서, 청문각, 태성, 형설.

	1. 수필의 본질 (1)내간	내간	2. 수필의 요건을 이해한다.
디딤돌	1. 문학 문화의 특성 (1) 국어 문화와 문학 문화	선조대왕이 삼웅 주에게 내린 언 간, 어떤 부인이 이웃 부인에게 보 낸 언간	1. 국어 문화와 문학 문화를 이해 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 다. 2. 국어 생활 속에서 문학 활동을 실천할 수 있다. 3. 한국 문화의 전통에 입각한 문 학 활동을 할 수 있다. 4. 문학의 소통을 이해하고 능동 적인 소통 활동을 할 수 있다.

선조가 셋째 딸에게 쓴 안부 편지가 2종의 문학 교과서에 공통으로 실려 있고, 혜경궁 홍씨가 당시 영의정인 체제공에게 당부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와 어떤 부인이 이웃 부인에게 보낸 안부 및 요청의 내용을 담은 편지가 각각 한 편씩 실려 있다. 세 작품 모두 한글 편지로, 한문 편지는 단 한 편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주)한국교육미디어는 ‘전문적인 작가가 아니더라도 창작이 가능하며 형식이 비교적 자유롭고, 교술적인 주제를 솔직하고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는 수필의 일반적인 특성을 이해한다는 학습 목표 아래 비교적 짧고 쉬운 내용의 안부 편지를 다루고 있다. 디딤돌도 역시 ‘한글 편지를 제재로 하여, 국어 문화와 문학 문화를 이해하고 그러한 문화를 생활화하는 방안’에 대해 학습하고 있다. 두 출판사 모두 안부나 당부, 요청과 같은 전달 중심의 실용적인 한글 편지를 다루고 있으며, 내용이 갖는 정이라든가 표현의 아름다움을 묻는 문학적인 감상과는 거리가 먼 학습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한글 편지는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조선 후기 여성들의 일상 체험과 내면세계가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주된 담당층이 여성으로 한정되어 소재에 한계가 있고, 전달 중심의 실용문적인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내용과 표현 면에서 좀 더 문학성이 짙은 편지 작품을 제시하고 학습자들이 감상하도록 교수해야 한다. 본고는 한문 편지 중 문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척독 작품을 활용하고자 한다. 척독 작품은 짧은 글 속에 작가의 진솔한 감정과 철학, 현실의식이 비유적으로 표현되어 예술적 깊이가 있는 글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현행 교과서에 실린 편지 관련 단원의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을 살펴본 결과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교과서에서 편지글을 문학 작품으로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즉 편지글을 실용문의 범주에서만 교육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물론 편지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쓰는 글임에는 분명하지만, 편지는 또한 정을 드러내는 문학이기도 하다. 따라서 편지는 실용문과 문학을 아우르는 교육이어야 한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과정에서 생활 속의 편지쓰기의 필요성과 간단한 편지를 쓰는 방법과 요령 등을 가르치고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편지 관련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학생들은 중학교 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하여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논리적이며 정확하게, 정서적이고 풍부한 언어로 표현하는 데까지 발전시키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발견된다. 즉 중학교 과정의 편지글 학습과 고등학교 과정의 편지글 학습이 서로 연계를 이루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중학교 과정에서 배운 실용적인 편지 쓰기 학습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서적이고 풍부한 언어로 표현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교육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편지 쓰기가 갖는 정의적 교육의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편지는 생각과 느낌을 전달해 주는 수단일 뿐 아니라, 편지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생활을 보다 넓고 깊게 해 준다. 오늘날 여러 통신수단으로 편지의 의사소통으로서의 역할은 경미해지고 있지만, 편지글은 다른 통신수단이 할 수 없는

인간 형성의 기능이나 인간 회복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편지의 정의적 교육의 측면에 주목하여 이러한 효과를 교육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편지 교육은 그 교육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수업시수의 부족 등과 관련된 현행 교육 과정의 여건상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다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편지 교육은 현행 교육과정에서 보충 학습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국어과 교과서에서 편지 작품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양은 매우 적지만, 편지 쓰기를 문학 감상의 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예는 매우 많다.²³⁾ 학생들에게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편지 쓰기는 문학 작품의 능동적인 감상과 재창작이라는 관점에서 활용도가 높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의 작가나 주인공에게 편지를 쓰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능동적으로 읽기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작품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작품을 새로운 의미로 재창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

또한 중학교 과정의 ‘생활 국어’의 ‘쓰기’ 단원에서 편지를 글쓰기 교육으로 활용함에 있어 요즘의 편지뿐만 아니라 전달이 중심인 되는 옛 문인들의 비교적 쉬운 편지를 보충적으로 활용하여 쓰기 목적에 따른 글쓰기와 독자를 고려한 글쓰기 방식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이러한 학습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과정의 국어과 수업에서는 문학적 표현이 뛰어난 편지 작품을 감상하고

23) 문학 작품의 감상방법으로 편지쓰기를 활용한 예)

※ 다음 시조를 읽고, 지은이에게 편지를 써 보자. (『국어 3-1 교사용 지도서』, 교육인적자원부, 2005.)

<훈민가> 송강 정철

오늘도 다 새었다 호미 메고 가자스라
내 논 다 매어든 네 논 좀 매어 주마
울 길에 뽕 따다가 누에 먹여 보자스라.

중학교 과정에서 배운 편지 쓰기를 좀 더 풍부하고 문학적인 글쓰기로 발전시키는 데 한문 편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편지의 교육적 가치

1) 편지의 쓰기 교육적 의의

글쓰기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의미를 재구성하는 표현 방법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창의성과 고등 사고력이 길러지고, 자신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글쓰기는 학습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기능임과 동시에 인간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갖추어야 할 기본능력이다. 정보화 사회로 특징지어지는 앞으로의 고도 산업 사회에서 꼭 필요한 학습 과정 중에 하나이므로 교육을 통해 충분히 신장시켜 주어야 한다.²⁴⁾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글쓰기를 어렵고 부담스러워 한다.²⁵⁾ 따라서 글쓰기 능력 향상에 앞서 글쓰기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을 갖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학생들이 쉽게 글쓰기에 접근할 수 있고 즐겁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본고는 편지쓰기를 활용하고자 한다. 편지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상대에게 일상적인 소재를 가지고 친근하고 솔직하게 쓰는 글이기 때문이다. 편지는 서로 주고받는다는 특성을 갖는데, 이러한 상호작용은 다음 글쓰기를 강화하고 다른 사람의 글을 많이 읽어봄으로써 자신의 글쓰기에도 도움이 된다.

24) 이지연, 「즐거쓰기를 통한 작문 지도 방안 연구」, 청주교육대 교육대학원, 2004. 5쪽.

25) 이지연(2004)은 아이들에게 국어 공부에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중 가장 좋아하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서 쓰기를 좋아한다고 대답한 아이는 15.3%이고, '글쓰기 시간이 다른 수업 시간보다 재미없다.'고 대답한 학생이 57%라는 점에서 작문에 대한 흥미가 그다지 높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편지쓰기에 아이들이 흥미도 느끼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된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털어놓게 하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유의한다. 교사는 홈페이지에 편지 쓰기 코너를 만들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편지를 쓰도록 지도한다. 친구 혹은 선생님에게 자유로운 주제로 편지를 써서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고, 교사는 답장을 통해 글쓰기에 대한 의욕을 북돋아 줄 수 있다. 서면으로 편지를 쓰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인터넷을 활용하면 아이들의 관심을 좀더 불러일으키고 지속적으로 편지쓰기를 장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교사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편지를 쓰도록 공간을 열어 두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옳지 못한 표현에 대해서는 교정 지도하도록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네티켓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 인터넷에서 흔히 사용하는 비어나 속어, 은어 등의 사용도 줄어들 수 있다.

편지는 생각을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다. 말로 생각을 전달하는 것도 효과적이기는 하나 자칫 잘못하면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말이란 매우 가변적이기 때문에 체계를 세워 조리 있게 하기란 쉽지 않으며, 한 번 해 버린 말은 수정하기도 힘들고, 또 말하는 순간의 감정에 사로잡혀 전하고자 하는 뜻과는 다른 말을 해 버릴 수도 있다. 말이란 이처럼 불완전한 것이며, 때로는 우리를 당혹스럽게도 만든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편지로 쓰면 생각을 차분히 되새겨 볼 수도 있고, 생각에 체계를 세워 조리정연하게 정리해 볼 수도 있으며, 혹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수정되고 정리된 편지글은 자신의 생각을 간결하면서도 명확히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즉 편지는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표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편지는 수신인과 쓰기 목적을 달리 하여 여러 가지 글쓰기 방식을 배울 수

있다. 윗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것과 또래 친구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형식과 표현 면에서 상당히 다르다. 윗사람에게 편지를 쓰도록 하여 형식과 예절을 갖춘 글쓰기를 배울 수 있고, 또래 친구에게 편지를 쓰도록 하여 창의적이고 진솔한 표현 방식을 배울 수 있다. 학생들은 여러 상대에게 편지쓰기를 해 봄으로써 독자의 나이와 성향, 배움의 정도, 자신과의 친분 정도에 따라 글을 쓰는 방식과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할 수 있다. 또한 같은 표현이라도 상대의 처지와 마음을 배려하는 글을 쓰도록 돕는다.

편지는 안부와 감사, 축하와 위로, 부탁과 거절, 건의 등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여러 목적에 따라 상대에게 전달하는 글이다. 다양한 목적을 가진 글을 써봄으로써 학생들은 여러 가지 글쓰기 방식을 배울 수 있다. 자신의 견해나 생각을 상대에게 피력하는 편지에서는 설득하는 글쓰기를 배울 수 있고, 친구와의 일상적인 편지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 외에도 상대방의 부탁을 정중하게 거절하는 글쓰기와 진심을 다해 경조사를 축하하고 위로하는 법도 배울 수 있게 된다.

편지글은 받을 사람과 쓰는 목적이 뚜렷한 글이기 때문에 알맹이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바탕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편지글을 잘 쓸 수 있다는 것은 나아가 다른 글도 잘 쓸 수 있는 바탕이 되므로 편지글짓기 지도는 글쓰기 교육에서 상당한 중요성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종류의 글에 비해 학생들에게 일상적 밀착도가 높은 편지를 읽고 쓰도록 지도하면 학생들은 편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작문에 대한 잃어버린 흥미와 필요성을 되찾게 될 것이며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²⁶⁾

26) 편지를 글쓰기교육의 측면에서 살펴본 논문은 다음과 같다.

김미애, 「기초 서술력 신장을 위한 작문지도 방법에 관한 연구 : 중학교 학생의 편지글 분석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1988.

박영복, 「효율적인 작문 학습을 위한 문장 유형별 지도에 관한 연구 : 편지글 지도를 중심으로」, 교육논총1,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1981.

서희석, 「중학교 글짓기 지도에 관한 연구; 편지글쓰기 지도 중심」, 단국대 교육대학원, 1989.

2) 편지의 문학 교육적 의의

지금까지 편지 교육은 글쓰기 교육의 측면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다. 그것은 편지글이 전달의 목적을 가지고 쓴 실용적인 글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물론 편지는 목적을 가지고 상대에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전하는 실용문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좋은 편지 작품의 감상은 문학 교육적 면에서도 가치가 있다.

문학은 현실을 반영한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모습이 여실히 나타나고, 당대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반영한다. 또한 문학은 언어의 예술로 독자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준다.

이러한 문학의 특성을 편지 작품 또한 지니고 있다. 편지에는 쓰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 가치관과 사상이 드러나며, 이를 통해 당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 또한 잘 쓴 편지는 읽는 사람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준다.

학생들은 문학 작품을 읽고 감상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새로운 세계를 이해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인간의 다양한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한편의 아름다운 글을 감상하면서 학생들은 정서가 순화되고 미의식이 함양된다. 또한 작품의 기발한 착상과 참신한 내용은 학생들의 상상력과 창의력까지도 키워줄 수 있다.

이러한 문학 교육의 효용성을 편지 작품을 문학 교재로 하여 교육을 하였을 때에도 충분히 얻어낼 수 있다. 편지에는 다양한 삶을 살았던 인간의 희로애락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편지 작품을 읽으며 학생들은 당대의 사회상과 작가가 처한 처지를 이해하고 상상하게 된다. 정이 가득 담긴 편지를 읽으면서

이지연, 「즐거쓰기를 통한 작문 지도 방안 연구」, 청주교육대 교육대학원, 2004.

정재룡, 「편지글짓기 지도 연구 : 중학생을 대상으로」, 경상대 교육대학원, 1993.

학생들의 정서가 순화되고 미적 감수성이 길러진다. 편지 작품에 나오는 기발한 착상과 다양한 표현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 함양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처럼 편지글 또한 문학 작품이 가지는 특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며, 편지글의 교육을 통해 문학 교육의 효용성을 충분히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편지는 실용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문학 교재로 삼기 위해서는 문학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작품을 선별하여 감상하도록 교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옛 문인들의 편지에는 여러 가지 전달의 목적을 가지고 쓴 실용적인 편지도 있지만 그리움이나 슬픔, 기쁨과 같은 인간적인 감정을 서정적으로 표현하고 일상에서 느낀 생각들을 작가의 상상력으로 참신하게 표현한 편지들도 있다. 교사는 이러한 편지 작품을 선별하여 학생들이 재미있게 작품을 읽고 즐겁게 감상할 수 있도록 교수하여야 한다.

척독은 조선후기 문인들이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에 주고받던 짧은 편지글이다. 정을 전달한다는 편지글의 본령을 잊지 않고 일상생활과 주변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서정적, 심미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예술적인 경지에 이를 수 있었다.

척독은 생활 속에서 마주치는 자잘한 사물에 의미를 부여하고 신선하고 생동감 넘치는 표현들로 가득하다. 기쁨과 웃음, 노여움과 꾸짖음이 꾸밈없이 드러나고, 상대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곳곳에 배어 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다 보면 입가에 저절로 웃음이 번지고, 몽클한 정이 울림으로 가슴이 따뜻해져 움을 느낄 수 있다.

옛 문인들의 척독에 담긴 삶의 소탈한 풍취와 정은 오늘날의 우리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감정으로, 고전을 어렵고 지루하게 느끼는 학생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문학 교재로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본고는 III장의

‘2. 표현중심의 편지와 문학적 감상’에서 척독을 활용한 효과적인 문학 감상을 위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편지의 인성 교육적 의의

글쓰기 교육은 문장의 표현력을 길러주며 학생들 각자의 생각을 정리하고 생활의 반성을 통하여 인격 향상과 생활 개선에 이바지하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또한 글을 씀으로 해서 사물에 대한 관찰력, 비판력을 날카롭게 하고 인생에 대한 통찰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하고 나아가서는 자기의 의식 내부와 생활의 반성을 통해 자신을 다스리고 키워나가며 생활의 주변을 가꾸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²⁷⁾

예부터 ‘글은 곧 사람’이라고 했다. 글을 보면 그 글을 쓴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다. 글에는 그 사람의 느낌이나 생각 뿐 아니라 인품까지 나타난다.²⁸⁾ 또한 글은 그 글이 쓰인 시대를 반영하는 산물이다. 글쓰기는 글을 쓰는 사람의 생활과 의식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생활과 의식은 사회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글쓰기 교육이 인성 교육이 되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오늘날 TV · 컴퓨터 등의 대중 매체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내용과 빠르고 여과 없는 전달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즉흥적인 사고를 가져오고 감정적인 표현으로 나타나기 쉽다. 시각적이고 빠른 자극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교사는 글쓰기 활동에 앞서, ‘본보

27) 박청숙, 「중학생의 작문능력 실태와 작문지도의 개선방안 연구」, 경성대 교육대학원, 1996.

28) 성실한 사람은 성실한 글을 낳고, 거친 사람은 거친 글을 낳고, 허풍이 심한 사람은 허황한 글을 쓴다. 이와 같은 명제를 거꾸로 세워 보면, 성실한 글을 씀으로써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실한 사람이 되고 풍치는 글을 지음으로써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빈약한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려중동, 『국어교육론』, 형설출판사, 1983)

기 글' 감상단계에서 인성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글을 선별하여 학생들이 감상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글들은 감상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세계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배경 지식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글을 쓰는 과정을 통해서도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는 삶을 가꾸는 글쓰기 교육으로써 편지쓰기 교육을 활용하고자 한다.

편지는 떨어져 있는 상대방에게 소식이나 사연 또는 용무를 알리거나 전하기 위해 일정한 격식에 따라 글로 쓴 용지 또는 그 글을 말한다. 편지는 지금 즉시 만날 수 없거나 또는 만나서 얘기하는 것보다 글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자 할 때 또는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기 곤란한 내용일 경우에 하고자 하는 말을 글로 써서 보내는 자기표현의 진솔한 수단이다. 즉, 편지는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느낌을 상대방에게 전하고자 할 때 또는 말로써 전달하기 곤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자 할 때 글로써 서로간의 대화를 하는 의사소통수단으로써 보내는 이의 소중한 마음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

편지는 생활 속의 진솔한 이야기와 지혜가 속속들이 담겨있어 읽는 이의 마음을 즐겁고 밝게 해주고 감동을 주어 인격을 순화하여 준다. 바쁜 일상을 사는 사람에게 보고픈 이에게서 받은 편지는 잊고 지냈던 아름다운 추억과 그리움을 선사하고, 고난과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는 한 장의 편지가 큰 위로가 되기도 한다.

사노라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외롭고 흔들리기도 하며 분하고 때로는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때도 간혹 있기 마련이다. 마음이 상하거나 고민이 있을 때, 기분전환을 하고자 할 때, 이해를 구하고자 할 때, 답답할 때, 도움 · 협조 · 부탁을 바랄 때 등 무언가를 상대방에게 털어놓으며 하소연하고 싶을 때 이를 해결해주는 메신저 역할을 해주는 것은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과의 편지이다.

서로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정을 나누는 편지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인간관계의 올바른 형성을 자연스럽게 도모해 준다. 서로 간의 감정이 스며든 아름다운 편지는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가꿔준다. 작은 기쁨과 용기를 주는 소중한 마음의 벗이 된다. 진솔한 편지는 서로의 감정을 순화시키고 우애와 사랑을 돈독히 다져갈 수 있게 한다.

편지를 쓰는 것은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관조하게 하여 순수한 마음을 갖게 하는 자기성찰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자신의 그릇된 행동과 생각을 되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기회를 준다.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 소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길목을 열어주고, 행복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다.

이처럼 편지를 주고받는 것은 학생들의 인성 발달 면에서 매우 가치 있는 활동이다. 교사는 편지쓰기를 교육적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이 건전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옛 문인들의 한문 편지를 인성 교육적 측면에서 활용하고자 한다.

옛 문인들에게 편지는 얼굴을 맞대고 마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어주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당시에 편지는 자신의 생각을 다듬어 놓는 좋은 방법이었다. 따라서 선비들은 모두들 편지를 소중하게 생각했고 또 잘 보관했다. 조선 시대 선비들의 문집에서 시와 함께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바로 편지였다.

그들의 편지는 일상의 안부나 소식을 전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학문적 논쟁의 터전이었고 자기 성숙의 매개체였다. 그러므로 그들의 편지는 안부 편지일 뿐 아니라 학술 논문이기도 했으며 자기와 세상을 되돌아보는 성찰이기도 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편지글을 통해 그들의 생활 뿐 아니라, 사상의 전

개, 가치관, 정치적 지향과 같은 다양한 내용을 읽어 낼 수 있다. 한 마디로 그들의 삶을 가장 종합적이고 다양한 각도로 들여다 볼 수 있는 훌륭한 자료인 것이다.²⁹⁾ 옛 선인들의 편지글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삶과 정서를 느끼고, 그들의 사상과 가치관을 배울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옛 편지의 교육적 가치를 찾아볼 수 있다.

편지쓰기에 앞서, ‘본보기 글’ 감상 단계에서 옛 문인들의 한문 편지들 중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글들을 선별하여 감상하도록 하는 것은 인성 교육적 측면에서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것이다.

29) 김영두 편역, 앞의 책, 587쪽.

Ⅲ. 한문 편지의 교육 방안

앞장에서 이미 살펴 본 것처럼 한문 편지는 여러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한문 편지를 활용하여 이러한 교육적 가치들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고전수필 분야에서 편지만큼 다양한 내용을 담는 체제도 없다. 안부를 묻거나 소식을 전하는 가벼운 내용도 있고, 학문이나 정치적 견해를 피력하는 내용도 있으며, 훈계하는 내용도 있다. 현대에도 편지의 내용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는 것처럼, 고대에도 마찬가지였다. 군국대사의 논의나 정치적인 주장은 물론, 도리에 대한 의론·스승을 논함·천거·시문의 평·학술 논의·여러 가지 기술·의약과 방사(方士) 등에 이르기까지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 없다.³⁰⁾ 이러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한문 편지를 본고에서는 교육적 의의가 있는 세 가지 방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전달 중심의 편지 교육 방안’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안부·감사·위로 등과 같은 실용적 목적을 가지고 쓴 한문 편지를 대상으로 한다. 편지는 특정한 목적에 의해 지어진 것으로 메시지를 담는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 실용적인 목적의 편지글을 통해 학습자는 편지의 형식을 학습하고, 목적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글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또한 이러한 학습은 남을 배려하는 예의 바른 글쓰기로 나아가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표현 중심의 편지 교육 방안’에서는 문학적 표현이 돋보이는 한문 편지인 ‘척독’을 대상으로 한다. 옛 문인들은 편지에서 자신의 경험과 감정에 따른 솔직한 내면세계를 직접적인 방법이 아닌 비유나 고사의 인용, 묘사 등의 표현 방법을 통해 은근하게 표현하고 있다. 즉, 옛 문인들의 한문 편지는 내용과 표

30) 권호, 앞의 책, 200쪽.

현, 구성 면에서 한 편의 훌륭한 문학 작품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편지글의 학습을 통해 학습자들은 문학적 감상력을 높일 수 있고 자신의 글쓰기에도 이를 활용해 볼 수 있다.

‘교훈 중심의 편지 교육 방안’에서는 옛 문인들이 제자나 자식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학문을 하는 자세와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는 한문 편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편지에는 옛 문인의 삶의 자세와 철학, 위대한 가르침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이러한 편지글의 학습은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자신의 주장만을 옹기여기는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의 지표로 삼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1. 전달 중심의 편지와 실용적 글쓰기

편지는 떨어져 있는 상대방에게 소식이나 사연 또는 용무를 알리거나 전하기 위해 일정한 격식에 따라 글로 쓴 용지 또는 그 글을 말한다. 편지는 지금 즉시 만날 수 없거나 또는 만나서 얘기하는 것보다 글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자 할 때 또는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기 곤란한 내용일 경우에 하고자 하는 말을 글로 써서 보내는 자기표현의 진솔한 수단이다.

편지는 생각을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다. 말로 생각을 전달하는 것도 효과적이기는 하나 자칫 잘못하면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말이란 매우 가변적이기 때문에 체계를 세워 조리 있게 하기란 쉽지 않으며, 한 번 해 버린 말은 수정하기도 힘들고, 또 말하는 순간의 감정에 사로잡혀 전하고자 하는 뜻과는 다른 말을 해 버릴 수도 있다. 말이란 이처럼 불완전한 것이며, 때로는 우리를 당혹스럽게도 만든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편지로 쓰면 생각을 차분히 되새겨 볼 수도 있고, 생각에 체계를 세워 조리정연하게 정

리해 볼 수도 있으며, 혹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수정되고 정리된 편지글은 자신의 생각을 간결하면서도 명확히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된다.³¹⁾

편지는 어떤 사유를 알리고자 하는 것인 만큼 정겨운 글 안에 자신의 목적을 진솔하고 분명하게 담아야 한다. 편지를 쓰는 목적은 개개인에 따라 모두 다르다. 단순한 안부 편지에서 그리움과 사랑에 관한 것, 화해와 용서에 관한 것, 감사와 축하에 관한 것, 부탁과 협조에 관한 것까지 매우 다양한 목적을 가진다. 편지를 쓰는 목적은 이렇게 다양하지만 편지는 상대방의 현재 처한 상황과 심정을 고려하여 글을 써야 하고, 읽는 사람의 처지를 배려한 섬세함이 담겨 있어야 한다. 상대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 앞서야 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한문 편지 중에서 안부·위로·감사 등의 실용적 목적을 지닌 편지가 지니는 교육적 가치에 주목하여 교육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옛 문인들이 편지의 목적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얼마나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지를 한문 편지글을 통해 학습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글쓰기에 직접 적용해 보도록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편지의 형식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고 자신의 생각과 뜻을 상대방을 배려하여 예의바르게 표현하는 법도 학습하게 될 것이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실용적 목적의 편지를 직접 써보도록 학습활동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한문 편지를 쓰는 목적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상대방에게 글을 쓰는 목적에 따라 효과적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였다. 물론 하나의 편지 속에는 안부와 감사, 거절과 비판, 걱정과 위로 등이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는 작위적이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으나, 실제 교육을 함에 있어 학생들이 편지를 쓰는 목적에 따라 편지에 다양한 생각과 감정을 담아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

31) 서울시립대학교 교양교재편찬위원회, 앞의 책 .

각한다.

1) 안부 편지 쓰기

사람은 항상 함께 있을 수 없고 만나면 헤어지게 마련이다. 편지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을 가까이 연결해주는 매개체이다. 안부 편지는 특별한 용건이 없어도 그 동안 소식을 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거나 안부를 전할 때 쓰는 편지다. 안부 편지는 여러 편지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또 인정이 넘치는 편지다. 그래서 시인 박목월은 ‘안부 또는 문안 편지는 인간 사이에 아름다운 다리를 놓아 주고, 서로의 친밀한 마음이 오가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³²⁾

그러나 안부 편지라 하여 ‘그 동안 잘 있었나? 나도 너의 염려 덕분에 잘 있다.’와 같은 상투적인 인사말로 일관되어서는 안 된다. 너무 형식적이고 성의 없는 인사말은 읽는 이에게 어떠한 감동도 줄 수 없다. 그러므로 안부 편지는 자신의 개성을 살려 진실한 마음을 담아 써야 한다.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안부나 소식을 알리는 단순한 편지글이다. 단순하기 때문에 쓸 얘기가 없고, 인사치레를 하고 나면 그만 말문이 막혀 버리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히려 특별히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자기 심정이나 혹은 보고 들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늘어놓을 수 있고, 어떠한 편지보다 정이 가는 글이 될 수 있다.

안부 편지³³⁾는 학생들이 쉽게 글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상대방

32) 편지 쓰기 장려회 엮음, 『현대인의 편지백과』, 재단법인 우정사업 진흥회, 1990, 73쪽.

33) 학생들은 아직까지 인격적으로 덜 성숙된 상태이므로 학생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모범 편지글은 사무적인 편지글보다는 개인적인 편지글이 좋고, 개인적인 편지글 중에서도 개인과 개인의 인간관계가 잘 드러나는 문안편지가 좋다. (김미애, 「기초서술력 신장을 위한 작문지도 방법에 관한 연구: 중학교 학생의 편지글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1988.)

과의 친밀함을 높여 서로 글쓰기 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편지쓰기를 통해 얻어진 글쓰기에 대한 흥미와 관심은 다음 글짓기에도 바람직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안부 편지를 활용하여 편지의 형식을 학습하도록 하고, 형식에 따라 정성껏 글을 쓰도록 교수한다.

<예1>

※ 이 편지는 조선시대 문인인 박태보[°]가 장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가 갖는 형식’에 유의하며 편지를 읽고 다음 학습활동을 해 보세요.

㉠요즈음 추운 날씨에 관직생활 하시면서 일상생활은 어떠하십니까? 그렇고 그렇습니다. ㉡저는 부모님 모시면서 별 일 없습니다. ㉢부임지에 도착은 하였으나 모든 일은 겪어보지 못한 것이라 어리둥절하여 자못 딱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산골 마을이라 업무는 많지 않습니다만 토지가 침식되어 없고 백성들의 부역이 번거롭고 많습니다. 게다가 흉년이라 쌀을 꾸어오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이 눈앞의 근심입니다. 마침 집사람이 친절에 문안드리러 가는 편을 기회로 잠시나마 편지를 써서 안부를 묻습니다. ㉣이만 즐입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글 올립니다. ㉤임술(壬戌: 1682) 11월 15일. ㉥생(甥: 사위) 태보 올림.

㉦추신: 산 꿩 두 마리 보냅니다.³⁴⁾

[보충]
[°]박태보(朴泰輔, 1654~1689)의 본관은 반남(潘南), 자는 사원(士元), 호는 정제(定齊)입니다. 서계 박세당(西溪 朴世堂, 1629~1703)의 아들이며 저서로 『정제집(定齊集)』이 있습니다. 학문이 깊고 문장과 글씨에 뛰어났다고 합니다.

<학습활동>

1.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받는 사람과 어떤 관계인가요?

2. 윗사람에게 편지를 쓸 때는 지켜야 할 예의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3. 편지를 앞부분(전문), 중간부분(사연), 끝부분(결문)으로 나누고 ㉠~㉢에 해당하는 편지의 형식을 말해 봅시다.

4. 편지의 형식을 지키는 것은 지키지 않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5. ㉠의 인사말은 계절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계절을 달리하여 바꾸어 봅시다.

6. 오랫동안 안부를 못 전하던 친지에게 안부 편지를 써 봅시다.

이 편지는 조선시대 문인인 박태보(朴泰輔, 1654~1689)가 장인에게 보낸 안부 편지이다. 윗사람에게 보낸 편지로 예의와 격식이 잘 갖추어져 있고 편지의 형식이 잘 드러나 있다. 편지는 누구에게 보내느냐에 따라 형식이나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 편지는 자신의 심중을 글로써 표현하는 서면(書面)의 대화로써 편지를 읽는 상대가 정해져 있는 살아있는 글인 만큼 읽는 이의 인격을 생각하면서 예절과 일정한 격식을 갖추어야 한다. 편지를 쓸 때는 너무 틀에 매여도 안 되지만, 또한 너무 제멋대로 써도 안 된다.

편지의 형식은 크게 앞부분(전문), 중간부분(사연), 끝부분(결문)으로 나눌 수 있다. 앞부분에는 받는 사람의 호칭과 계절을 담은 인사, 상대방의 문안과

34) 임재완 편역, 하영휘 교열, 앞의 책, 235쪽.

자기의 안부를 담는다. 중간부분은 편지를 쓰게 된 목적, 편지를 보내는 까닭이 자세하게 나타나야 하므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끝부분에는 간단한 끝인사와 편지를 쓴 날짜,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쓰게 된다.³⁵⁾

안부 편지에는 계절의 변화에 따른 상대방의 건강 상태나 집안 형편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처해 있는 형편에 따라 진심으로 안부를 물어야 한다. 그리고 편지를 쓰는 사람 자신의 건강 상태나 생활 상태도 상대방에게 알려 주는 것이 예의다. 학생들에게 먼저 간단한 편지의 형식을 학습하게 한 후, 예문에서 편지의 형식을 직접 찾아보도록 한다. 형식을 지킬 때와 지키지 않을 때 중 어떤 것이 더 예의 바른 글쓰기를 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보도록 하고, 형식을 지킬 때 자신의 의사를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음도 깨닫게 한다.

계절에 따른 다양한 안부 인사말을 만들어 보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은 형식이 정해져 있어도 자신의 개성과 정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음을 배울 수 있다. 편지의 형식을 학습할 때 주의할 점은 형식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편지의 내용이라는 점이다. 교사가 형식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틀에 박힌 인사말이 담긴 성의 없는 편지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정성을 다해 자신의 진심을 담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임을 잊지 않도록 교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35) 편지 쓰기 장려회 엮음, 앞의 책, 45~61쪽.
서울시립대학교 교양교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102~108쪽.

<예2>

※ 이 편지는 조선시대 문인인 정두경[°]이 친구에게 쓴 편지입니다. 편지를 잘 읽고 다음 학습활동을 해 보세요.

먼 바다에서 소식을 서로 접할 길이 없어 그리운 생각만 간절합니다. 때때로 공문서를 보고서 대체로 무사하신 것을 알게 되어 위로됩니다. 화창한 봄에 당신은 정사보시며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리움을 견딜 수 없습니다. 저는 고질병을 무릅쓰고 밤낮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것이 이미 석 달이 지났는데, 형편이 쓰러질 것 같습니다. 딱한 형편을 어떻게 다 말하겠습니까? 청굴[°]을 진상하는 인편을 만나서 급하게 몇 자 적어 안부를 묻습니다. 이말 즐겁습니다. 살피주시기 바랍니다. 편지를 올립니다.

계해년(1623) 4월 5일 경제(庚弟[°]) 동명(東溟)

추신 : 제가 약으로 살아가는 것은 형께서도 아시는 바입니다. 형께서 다스리는 관할 지역은 약물이 넉넉히 생산되는 땅입니다. 각종 토산품을 넉넉히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향부자 · 지각 · 진청피 · 반하 · 석곡 · 두충 · 해동피 등을 가장 넉넉히 얻기를 바랍니다. 이 편지를 또한 정의(旌義)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³⁶⁾

[보충]

[°]정두경(鄭斗卿, 1597~1673)의 본관은 온양(溫陽), 자는 군평(君平), 호는 동명(東溟)으로 특히 시에 뛰어 났으며 저서로 『동명집(東溟集)』이 있습니다.

[°]청굴 : 익지 않은 푸른 굴

[°]경제(庚弟) : 나이가 같은 친구 간에 부르는 칭호.

<학습활동>

1. 예전에 조상들이 소식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2. 조상들은 편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전했을까요? (밑줄 친 부분을 근거로 생각

해 봅시다.)

3. 요즘 우리들이 소식을 전하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4. 옛날의 편지와 오늘날 우리가 소식을 전하는 방법과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생각해 봅시다.

	옛날의 '편지'	오늘날의 '통신수단'
장점		
단점		

정두경이 보낸 안부 편지로 당시에 편지가 전해지던 방법을 살펴볼 수 있다. 옛 문인들에게 편지는 얼굴을 맞대고 마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어주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다. 당시에는 개인들의 편지를 전하는 체계적인 우편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편지는 공무(公務)로 오가는 지인(知人)들이나 심부름을 맡은 종들을 통해 전달했다. 그러니 부릴 종이 넉넉한 부자이거나 관리들에게 쉽게 부탁할 수 있는 고관이 아니면 편지를 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³⁷⁾

36) 한국고간찰 연구회 편역, 앞의 책, 76쪽.

학습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당시에 조상들이 소식을 전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요즘의 방식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요즘은 여러 통신 매체가 발달하여 전화와 핸드폰의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쉽고 빠르게 소식을 주고받고 생각을 교환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쉽고 빠른 통신 수단들이 편지가 전달하는 정미 울림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다. 편지는 이러한 여러 통신 수단들이 대신할 수 없는 고유한 특성과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위의 학습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이러한 편지의 특성과 장점을 이해하고 편지 쓰기에 흥미를 갖도록 유도할 수 있다.

<안부 편지 쓰기의 예시>

※ 이 편지는 조선시대 문인인 이여(李翕)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벗에게 안부를 묻는 편지입니다. 옛 문인들의 편지 쓰기를 본받아, 안부 편지를 써 봅시다.

근자에 형께서 보내주신 편지를 받고서도, 인편이 돌아가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하여 답장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미안하고 한탄스럽습니다. 봄도 어느덧 반이나 지나갔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지내시는 마음이 자연의 모습과 어우러져 아름다울 것이라 생각되니, 더욱 그럽습니다.

이전부터 앓던 눈병은 회복되셨는지요? 이 병은 책 보는 것이 가장 해로워 더욱더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그럴저런 지내고 있어, 달리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근래 유도(有道: 원상유의 자字)와 가깝게 지내고 있는데, 서로 깨우쳐 주고 개발하여주는 유익함이 많습니다. 형을 초대하여 모시고

37) 이항·기대승 저, 김영두 편역, 앞의 책, 587쪽.

함께 즐거움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유감입니다. 형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급하게 적어서 답장을 보냅니다. 모든 것은 말없는 중에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삼가 답장을 올립니다.

무오년(1678) 중춘 29일. 아우 여췌 올림.

추신 : 편지 쓰고 난 후에 유도가 원주에서 돌아와 곧바로 작별을 고하니, 그림고 따르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하여 섭섭할 뿐입니다.³⁸⁾

<학습활동>

1. 편지를 앞부분(전문), 중간부분(사연), 끝부분(결문)으로 나누어 봅시다.
2. '앞부분(전문)'을 이루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위의 편지에서 해당부분을 찾아봅시다.
3. 위의 편지에서 빠진 부분은 무엇인가요?
☞ '전문'에서 찾아보세요.
4. 위 편지의 계절인사를 바꾸어 봅시다. (계절을 달리하여 그리움을 표현해 보세요.)
☞ 예) 가을 ; 손잡고 작별한 후에 새로이 가을바람이 불어오니, 그리워지는 마음 더욱 간절합니다.

5. '중간부분(사연)'의 내용을 다음 조건에 맞게 바꾸어 봅시다.

☞ 아프시던 부모님의 병세가 어찌 되었는지를 묻는 내용.

자신은 새 부임지에 부임 와서 업무를 보는 것이 낯설고 힘들다는 내용.

6. '끝부분(결문)'을 이루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위의 편지에서 해당 부분을 찾아봅시다.

7. 편지의 형식에 따라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 할머니께 안부 편지를 직접 써 봅시다.

☞ 오랫동안 뵙지 못한 그리움을 담아 계절에 맞는 인사말을 쓸 것.

할아버지 · 할머니의 안부를 묻고 자신의 안부도 적을 것.

학교생활이나 가족 이야기 등 자신의 요즘 근황을 세세하게 적을 것.

보고 싶은 할아버지, 할머니께
(계절인사)

(사연)
(끝인사)
(연월일 · 서명)

앞서 학생들은 옛 문인들의 안부 편지의 예를 통해 편지의 형식과 편지 쓰기의 필요성에 대해 학습하였다. 아이들은 편지가 갖는 형식을 학습하고, 이러한 형식을 갖출 때 상대를 배려하는 예의바른 글쓰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현대에는 쉽고 편리한 통신 매체가 많이 발달했지만, 편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을 돈독하게 하고 감정을 순화시키는 특성을 지닌다는 점을 통해 오늘날에도 편지 쓰기가 유용함을 깨닫게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습을 토대로 학생들이 오랫동안 뱉지 못한 웃어른께 그리움을 표현하고 안부를 묻는 편지를 실제 써보도록 하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편지를 받는 대상을 자

38) 한국고간찰 연구회 편역, 앞의 책, 158쪽.

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설정하여 웃어른에게 예의를 갖추어 편지를 쓰는 법을 배우도록 하였고, 계절에 따른 인사말을 통해 그리움을 표현하고 안부를 묻도록 하였다. 안부 편지에서 학생들은 안부를 묻고 나면 쓸거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쉬우므로, 교사는 학생들의 최근 상황이나 생활을 세세하게 편지에 적도록 지도하여 내용이 충실한 편지글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위로 편지 쓰기

위로의 편지는 불행이나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한 편지이다. 우리 주변에는 좋은 일도 많이 생기지만 뜻하지 않게 슬픈 일, 딱한 일들도 수없이 벌어지고 있다.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불행을 당하여 슬픔과 고통에 잠겨 있을 때 보내는 위로의 편지는 받는 이에게 심적으로 많은 격려와 용기를 북돋아 준다. 가까운 이웃과 친구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 불행과 실의에 빠졌을 때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눔으로써, 힘들 때 서로 의지하며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이 때는 장황한 글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위로해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하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다. 아니면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알려 주세요.’라고 써도 받는 이에게 뜻이 전해질 것이다. 병문안 편지라면 되도록 밝고 희망을 주는 글로 끝마치는 것이 좋다.

편지는 다른 종류의 글과는 달리, 받을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여 쓰는 글이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므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든지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즉 상대방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보다 더 정성스럽고 예의를 갖추어 표현해야 한다. 특히 위로 편지는 상대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러한 자

세가 더욱 필요하다.

<예1>

※ 이 편지는 조선시대 문인인 송래희[°]가 부친상을 당한 친척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를 잘 읽고 다음 학습활동을 해 보세요.

예절을 생략하고 아뢰입니다. 뜻밖의 흉변(凶變)으로 큰아버지께서 세상을 하직 하였습니다. 처절한 놀라움을 다시 무어라 말하겠습니까? 공을 친애함이 지극히 대단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애통함을 어떻게 견뎌나갑니까? 근래 상을 당한 여러 사람들은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넓히고 슬픔을 억제하여 저의 마음 걱정을 덜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쇠약한 몸에 병이 심해져 시골에 있어 찾아뵙고 위로할 길이 없어 다만 근심스런 생각만 더합니다. 삼가 위로의 글을 올립니다마는 위로의 글을 쓰는 예식을 다 갖추지 못했습니다. 계축(癸丑: 1853) 2월 16일 먼 친척 래희 올림.³⁹⁾

[보충]

[°]송래희(宋來熙, 1791~1867)의 본관은 은율(恩律), 자는 자칠(子七), 호는 금곡(錦谷)으로 저서로는 『금곡집(錦谷集)』이 있습니다.

<학습활동>

1.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2. 우리가 살다보면 힘들고 슬픈 일들을 겪는 때가 있습니다. 슬픈 일을 겪은 사람을 위로하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고, 어떠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지 생각해 봅시다.
3. 이 편지를 받은 상주는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이 편지의 어느 부분에서 특히 편지 받는 이를 배려하는 마음이 잘 드러난다고 생각하는지 적어 보세요.

4. 위로의 편지를 쓸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5. 위의 편지의 상주에게 위로의 마음을 담아 짧은 편지를 각자 써 봅시다.

조선시대 문인인 송래희(宋來熙, 1791~1867)가 부친상을 당한 친척에게 보낸 편지이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옛말처럼 슬픔이나 고통을 당한 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정성어린 도움은 큰 힘이 될 수 있다. 주위의 가까운 사람이 상을 당했을 경우, 직접 찾아가 조문을 하는 것이 예의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직접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편지를 정성껏 쓰는 것이 좋다.

위로의 편지는 받는 사람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평소보다 표현이나 내용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위로편지를 씌에 있어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소식을 들었을 때 시간을 미루지 말고 즉시 써야 한다. 계절인사 등은 생략하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상대방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한 형식적인 인사에 그치지 않아야 하며, 슬픔을 너무 지나치게 표현하여 받는 사람을 더욱 슬픔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에게 편지가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학생들이 직접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고, 위로의 편지를 쓸 때 주의해야 할 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자유롭게 발표해 보도록 한다. 이러한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힘들 때 서로 의지하며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39) 임재완 편역, 하영휘 교열, 앞의 책,

<예2>

※ 이 편지는 조선시대 문인인 이남규^o가 아픈 친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를 잘 읽고 다음 학습활동을 해 보세요.

고요한 절간에서 이들을 묵으면서 나눈 이야기로 참으로 오랜 기간 격조했던 회포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급히 동서로 각기 헤어져서 미진한 정이 못내 아쉬웠는데, 지금 인편에 보내오신 편지를 받아 보고 편찮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의 여관에서 마침 이른 추위를 만난 것이 빌미가 되어 옛 병이 다시 도진 것이 아닙니까? 금년은 돌림병이 돌아 사람마다 감기에 걸려서 잘 낫지 않으니,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음식을 조절하시면서 특별히 주의해서 몸조리 하십시오.⁴⁰⁾

[참고]

^o이남규(李南珪, 1855~1907)는 구한말의 명대부(名大夫)이며 순국선열의 한 분입니다. 호는 수당(修堂)으로 저서로는 『수당집(修堂集)』이 있습니다.

<학습활동>

1. 글쓴이는 무엇을 위로하고 있나요?
2. 글쓴이는 아픈 이에게 어떻게 하도록 권유하고 있나요?
3. 자신이 아플 때, 친구로부터 위로의 편지를 받는다면 어떻게 생각해 봅시다.
4.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답장을 써 봅시다. (편지를 준 사람의 마음에 감사하는 내용이 되어야겠지요.)

위의 편지는 이남규가 벗인 문십에게 보낸 편지이다.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특별히 몸조리 잘 할 것을 당부하는 글쓴이의 자상한 마음이 잘 담겨져 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인간에게서 병이 가져다주는 고통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하였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병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친 환자에게 직접 찾아가 위로를 하거나 위로가 담긴 편지를 쓰는 것은 큰 힘이 될 수 있다.

아픈 사람을 문병한 경험이나 자신이 아팠을 때 고마움을 느꼈던 경험을 발표해 봄으로써 학생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또한 위의 편지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답장을 써보도록 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을 걱정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게 한다.

<위로 편지 쓰기 예시>

※ 이 편지는 조선시대 문인인 이홍욱(李弘郁)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벗을 위로하는 내용의 편지입니다. 옛 문인들의 편지 쓰기를 본받아, 위로 편지를 써 봅시다.

문습니다. 서늘한 가을 날씨에 형께서는 조용히 수양하시며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리움이 간절합니다. 저는 성묘하기 위해 지난 달 고향으로 내려갔다가 지금 막 돌아왔습니다. 다녀오는 동안 일정이 매우 바쁘고, 또 형의 임시 거처가 길가에서 꽤 멀다는 것을 듣고서는 들러 인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죄스러움을 무어라 말하겠습니까? 형의 액환(厄患)은 실로 저의 불민함 때문입니다. 매양 이런 생각이 들면

40) 이남규 저, 홍승균 역, 『(국역)수당집修堂集』 제 3권, 민족문화추진회, 1999.

민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국이 갈수록 걱정스럽고 위태로워지니, 형의 귀양살이가 도리어 세속에서 골골하며 사는 것보다 낫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형께서는 잘 다스리고 견디며 스스로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일일이 쓰지 않으니, 형께서 살펴주십시오, 삼가 편지를 올립니다.

경인년(1650) 9월 5일. 제 홍욱

추신 : 마침 관아에 인편이 있기에 바쁘게 씁니다.⁴¹⁾

<학습활동>

1. 위의 편지에서 글쓴이는 어떤 상황을 위로하고 있나요?
2. 글쓴이가 상대를 위로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봅시다.
3. 상대의 아픔을 위로하는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2번에서 찾은 부분을 여러분의 글로 바꾸어 써 보세요.

4. 편지를 써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 예) 시험 성적이 떨어져서 실의에 빠진 ○○

선생님께 꾸중을 들은 ○○

5. 시험 성적이 떨어져서 실의에 빠진 친구에게 위로하는 편지를 써봅시다.

☞ 실망하고 있는 친구에게 자신이 시험 성적이 떨어졌던 때의 경험을 들어 위로하고, 다음 시험에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하는 내용의 편지를 아래에 이어서 적어보자.

○○에게

○○야, 이번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와서 많이 속상하지?
나도 2학년 중간고사 때, 성적이 많이 떨어져서 고민이 많
았어.

앞서 학생들은 옛 문인이 상주에게 보낸 편지와 아픈 사람을 위로하는 편지의 예를 통해 주변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로하는 편지 쓰기 방법과 유의할 점에 대해 학습하였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게 된다.

여기에서는 학생들이 실제 위로 편지를 써보도록 학습활동을 제시하였다. 학생들에게 익숙한 경험을 토대로 친구를 위로하는 편지를 써보도록 하여 실생활에서 적용하도록 하였다.

3) 감사 편지 쓰기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살핌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가기가 힘들다. 아무리 능력 있고 잘난 사람도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며 살 수는 없다. 사회가 다원화되어 가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도 그만큼 많아지고, 그만큼 다른 사람의 도움에 감사할 일도 많아지고 있다.

오늘날 아이들은 풍족한 환경에서 부족한 것 없이 자라난다. 따라서 일상의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같이 주변의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어버이날이나 스승의 날의 경우 학교에서 부모님과 선생님께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갖기도 하지만, 형식적인 행사에 그칠 경우가 많고 학생들에게 편지 쓰기 교육이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감사의 편지 쓰기는 학생들이 평소 자신이 다른 사람의 도움과 사랑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주변의 고마운 분들을 다시금 떠올리고 그분들의 도움과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할 수 있

41) 한국고간찰 연구회 편역, 앞의 책, 82쪽.

다. 감사의 마음이 있어도 표현하기 쑥스러워서, 혹은 적절한 표현이 생각나지 않아서 표현을 하지 못했던 아이들에게 감사 편지 쓰기 교육은 글쓰기의 측면에서나 인성적인 측면에서나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예1>

※ 이 편지는 조선시대 문인인 김정희[°]가 초의 선사에게 차를 선물로 받은 것에 감사하여 쓴 편지입니다. 편지를 잘 읽고 다음 학습활동을 해 보세요.

병석에서 선사의 편지와 선물 꾸러미를 연달아 받으니 매우 기쁩니다. 부처님의 부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마를 적셔 주는 감로수라고나 할까요. 아무튼 보내 준 차 덕분에 병든 위장이 지금은 시원하게 풀린 것 같습니다. 더구나 맥이 풀려 있던 때라, 그 고마움이 뼈에 사무쳤답니다.

자흔과 향훈도 차를 보냈구려. 그 넉넉한 마음이 여간 고맙지 않습니다. 나대신 정중히 감사의 뜻을 전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향훈 스님이 따로 박생에게 보낸 엽차는 파공의 추차이에 못지않게 향미가 있더군요. 가능하다면 내 것도 한 봉지 더 부탁했으면 합니다. 병이 어지간해지면 보잘것없는 글씨로나마 특별히 보답할 생각이니, 향훈 스님에게 나의 이 뜻도 함께 전하여 바로 내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포장 맛도 매우 좋습니다. 병든 혀를 상쾌하게 해 주었어요. 고맙구려.⁴²⁾

[참고]

[°]김정희(金正喜, 1786~1856)의 호는 추사(秋史) 또는 완당(阮堂)으로 순조 14년에 과거에 급제하여 병조판서를 지냈습니다. 금석학의 대가로 북한산의 진흥왕 순수비를 밝혀냈고, 독특한 서체를 창안하여 이른바 추사체로 유명합니다. 저서로는 《완당집》, <금석과안록> 등이 있습니다.

<학습활동>

1. 글쓴이는 무엇에 감사하고 있나요?

2.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봅시다.

3.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받은 기억이 있나요?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좋아요.)

4. 3번의 고마운 사람에게 감사의 편지를 짧게 적어 봅시다.

위의 편지는 김정희가 초의선사에게 차를 보내준 것에 감사함을 표현한 편지이다. 받은 편지와 선물을 부처님의 부적과 감로수에 비유하여 고마움을 곡진하게 표현하고 있다. 옛 문인들은 편지와 함께 여러 물건을 함께 보내거나 부탁하는 경우가 많았다. 편지와 물건을 받은 사람은 잘 받았다는 것을 또한 편지로 전했다. 이러한 편지에는 잘 받았다는 인사와 함께 받는 사람의 고마움이 전해졌다. 이처럼 옛 문인들은 다른 사람과 작은 것도 나누고, 또 작은 호의에도 감사할 줄 알았다.

오늘날 아이들은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받은 것에 대해서는 쉽게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옛 문인의 이와 같은 편지글을 통해 학생들이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 작은 것이라도 베풀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도록 한다. 감사 편지는 상대방의 호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편지로 띄워 보내는 것이므로 친밀한 정과 믿음이 가도록 정중하고 겸손하게 본인의 느낌을 정감 있게 표현하도록 한다.

42) 손광성·임종대·김경수 역, 『한국고전명수필』, 을유문화사, 2000.

<예2>

1. 이 편지는 조선시대 문인인 기대승[°]이 학문을 함께 논하고 가르침을 받던 스승 이항[°]에게 안부를 묻고 가르침에 감사하며 쓴 편지입니다. 편지를 잘 읽고 다음 학습활동을 해 보세요.

선생님께 올리는 글.

(가) 삼가 여쭙습니다. 건강은 어떠신지요? 새해를 맞아 더욱 학문에 힘쓰신다면, 제 마음이 더욱 기쁘고 경사스럽겠습니다. 저는 외람되이 두터운 은혜를 입어, 남은 목숨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다만 12월 초순에 든 감기가 병이 되었는데도 오래도록 조리하지 못하고 보니, 원기가 쇠약해져서 갖가지 병이 드나들어, 지금까지 두 달 가량 바깥에 출입하기조차 어려운 형편이라 매우 걱정입니다.

(나) 얼마 전 김이정이 전해 주는 선생님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깨우쳐 주신 말씀을 살피고는 흐뭇하고 위로가 되어, 걱정이 깨끗이 씻겨 나감이 비할 데가 없었습니다. 다만 병으로 흐트러진 데다 세속의 길에 깊이 빠져, 몸부림쳐도 벗어나기 어려우니 자못 당황스럽습니다. 비록 선생님께서 다시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가르쳐 주셨으나 진실로 은혜에 보답하지 못할까 두려우니, 부끄럽고 송구한 마음 더욱 지극합니다.

(다) 또 이곳에서 일을 처리한 것이 익숙하지 못해 평소에 마음먹었던 계획이 허사가 되었고, 벼슬에서 물러나 쉴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다시 바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앓고 있는 병을 핑계로 벼슬을 내놓고 돌아갈까도 생각했으나, 자취가 너무 드러나 뒤에 수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금 제 생각에도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마치 낚시에 걸린 고기처럼 갈혀 있으면서도, 다시 뻥뻥스레 녹이나 타먹을 껍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평생을 돌이켜 생각하건대 탄식을 그칠 수 없습니다.

(라) 멀리서 한가로이 계시면서 도를 음미하시는 아름다운 모습과 한 해의 마지막 때의 짧은 별을 만끽하는 즐거움을 상상하니, 저도 모르게 정신이 들떠 선생님께 쏘립니다. 그러나 뉘올 길이 없어 한마디 한탄을 누르기 어려우니, 고개를 들어 멀리 바라본들 어찌하겠습니까? 항상 짧은 편지나마 자주 닦아 올려 안부를 여쭙고, 아울러 의심스러운 것을 물어 옛 학업을 익히고자 했지만, 몸이 이미 쓸데없이 번거롭고 인편도 맞추기가 어려워서 뜻을 이루지 못했으니, 헛되이 간절한 마음만 더할 뿐입니다. 이것은 또한 겨우 벼슬길에 들어서자마자 남들의 지

목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거칠고 어리석지만 제 생각으로는 항상 두려운 마음이 간절하여, 감히 다시 어지럽게 편지하여 존엄한 선생님께 누가 미치지 않게 하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라건대 가련하게 여기시어 이해해 주시면 어떨겠습니까?

(마) 전에 주신 가르침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어 남들이 볼썽는 대상이 되는 것을 경계하라는 말씀은 아직까지 잊지 않고 마음속에 담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스스로 그 길로 빠져들고 있음을 깨닫게 되니, 어찌해야 뒷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렵고 한탄스러운 마음 또한 깊으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약 몇 가지를 올리니, 향촌에 구급용으로 두고 쓰시는 것이 어떨겠습니까?

가정 을축 1월 23일, 후학 대승 절하며 올립니다. 요즘 오른팔이 아파서 붓을 잡기 어려워, 글씨가 정성스럽지 못합니다. 송구합니다.⁴³⁾

[참고]

퇴계 이황(1501~1570)과 고봉 기대승(1527~1572)은 서로를 알게 된 해인 명종 13년부터 퇴계가 세상을 떠난 선조 3년(1570)까지 13년 동안 백여 통의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고봉은 서른둘의 패기와 열정을 갖춘 젊은 학자였고, 퇴계는 스물여덟의 대학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기간 편지글을 통해 자신의 철학과 학문을 논하고 가르침을 주고받았습니다.

<학습활동>

1. 각 문단별로 내용을 짧게 정리해 봅시다.

(가) - 예) 스승의 안부를 묻고 자신의 근황을 알림.

(나) -

(다) -

(라) -

(마) -

2. (대)문단으로 미루어 볼 때, 지금 글쓴이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3. 글쓴이가 스승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문단을 찾아봅시다.

4. 평소에 스승인 퇴계가 글쓴이에게 주었던 가르침이 무엇인지 (배문단에서 찾아봅시다.

5. 가르침을 주셨던 선생님들 중, 감사함을 전하고 싶은 분이 있나요? 그 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써 봅시다.

위의 편지는 고봉 기대승(高峯 奇大升, 1527~1572)이 퇴계 이황(退溪 李滉, 1501~1570)에게 보낸 편지이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알게 된 해인 명종 13년부터 퇴계가 세상을 떠난 선조 3년(1570)까지 13년 동안 백여 통의 편지를 주고 받았다.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고봉은 서른둘의 나이로 패기와 열정을 갖춘 젊은 학자였다. 그는 단지 과거에 급제하여 출세를 하기 위해 학문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진정한 삶의 진리를 터득하려 했다. 과거를 보기 위해 서울로 향했던 그는 올라오는 길에 큰 학자로 이름 높았던 이들을 잇달아 만나 성리학의 중요한 주제들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고봉은 마침 서울에 와 있던 퇴계를 찾아가 그와도 논쟁을 벌였던 것이다. 당시 퇴계는 나이 스물여덟의 대학자로 낙향하여 학문에만 힘쓰고 있었는데, 젊은 학자인 고봉을 무시하거나 멀리하지 않고 학자로서 존중해 주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두 사람은 평생 편지를 주고받으며 철학과 학문을 논하는 사이가 되었다.

이 편지는 두 사람 사이에 영혼의 교류가 시작되던 비교적 초기 편지로, 퇴계의 가르침에 감사하는 고봉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다. 요즘 스승에 대한 학생들의 존경심과 감사하는 마음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마스크에서 그려지는 선생님의 모습은 하나같이 비리와 폭력으로 얼룩진 모습이다. 그런 모습을 접해온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더 이상 존경과 사랑의 존재가

43) 이황·기대승 지음, 김영두 옮김, 앞의 책, 130~132쪽.

아닌 것이다. 고봉이 영혼의 스승이자 벗인 퇴계에게 감사함을 표현한 편지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선생님의 가르침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글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한다.

<감사 편지 쓰기의 예시>

※ 이 편지는 조선시대 문인 이숙(李勳)이 친구에게 감사를 표현한 편지입니다. 옛 문인들의 편지 쓰기를 본받아, 감사 편지를 써 봅시다.

인편을 통해 보내주신 글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더운 날 씨에 근황이 좋다니 기쁘고 위로됩니다. 게다가 보내주신 쌍어는 근래 보기 드문 것으로, 맛도 송강(松江)의 농어 [°] 에 뒤지지 않습니다. 두터운 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나머지는 이만 줄입니다. 살펴주십시오. 답장을 올립니다.
임술년(1682) 7월 27일. 숙(勳).
추신 : 부채 두 자루를 보냅니다. ⁴⁴⁾

[참고]

[°]송강의 농어는 예부터 맛이 좋기로 유명하였습니다. 생선의 특징은 큰 입에 가는 비늘 그리고 아가미가 넷이라고 합니다.

<학습활동>

1. 글쓴이는 무엇에 감사하고 있나요?

2. 글쓴이가 상대에게 감사를 표현한 부분을 찾아봅시다.

3. 상대에 대한 고마움이 잘 드러나도록 2번에서 찾은 부분을 여러분의 글로 바꾸어 써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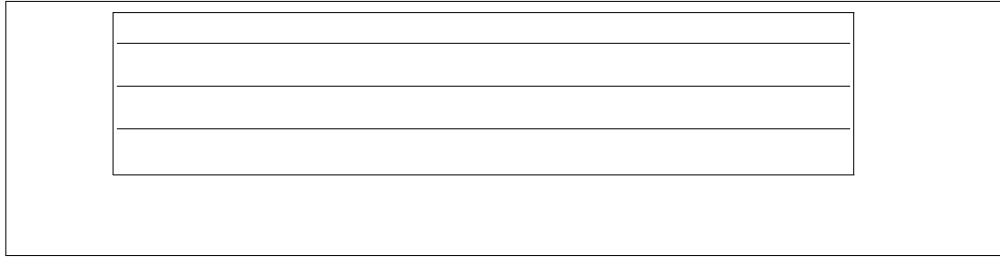
4. 내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 편지를 써서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 예) 맛있는 급식을 만들어 주시는 급식 아주머니께
아침에 우산을 씌어준 친구에게
항상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시는 경비 아저씨께

5. 우리를 위해 맛있는 급식을 만들어 주시는 급식 아주머니께 고마움을 담아 편지를 써 봅시다.

☞ 고마움의 마음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할 것.

급식 아주머니께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학년 ○반의 ○○○입니다.



앞서 학생들은 옛 문인들이 쓴 감사 편지의 예를 통해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과 평소 고마운 분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법에 대해 학습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주변의 고마운 분께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담아 편지를 쓰도록 학습활동을 제시하였다.

2. 표현 중심의 편지와 문학적 감상

고전 산문의 서(書)라는 문체는 일상생활에서 주고받는 편지는 물론, 논문 형식의 글이나 공문서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개진하는 글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18세기에 들어서면, 일부 문인들 사이에서는 경전과 학문에 대한 의견을 논리 정연하게 기술한 편지와 평소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상대에게 일상의 이야기를 전하는 편지를 쓰는 법은 달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나게 된다.⁴⁵⁾ 서(書)와 구별되는 이러한 성격의 편지글을 척독(尺牘)이라고 한다.

척독은 편지 가운데서도 짙막한 편지를 이르는 말이다. 척독은 단지 짧기만 해서는 안 되고, 의재언외(意在言外)의 함축과 핵심을 찌르는 흡인력, 그리고 여운을 남기는 강한 서정성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척독은 짧은 편지의 특

44) 한국고간찰 연구회 편역, 앞의 책, 116쪽.

45) 배미정, 「신정하 척독(尺牘)의 즐거움과 아름다움」, 『문헌과 해석사』 27호, 2004.

성상 지식과 감정이 직접적으로 교환되고, 인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농후하게 표현된다.

척독은 『소황척독(蘇黃尺牘)』 이래로 명·청 문인들에게 문예미를 구현하는 주요한 문학 양식으로 각광받았다. 개인의 경험과 감정에 따른 솔직한 내면세계를 드러내는 새로운 편지쓰기의 전범을 마련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허균의 척독소품이 나온 이후 18세기에 이르러 척독은 다른 문체가 흉내 낼 수 없는 격조를 가진 산문 갈래로 발전하였다. 18세기 다수의 문장가들은 척독에 특별한 애착을 갖고 아름다운 작품들을 남기고 있다.

척독은 시사(詩社)나 동호인 집단의 정서적 연대를 바탕으로 교환되었다. 박지원과 홍대용이 중심이 된 ‘백담시사’의 활동상황에서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박제가는 「백담청연집서(白塔淸緣集序)」에서 소집(小集)의 양상에 관하여 상세하게 적었는데, “시문과 척독이 걸핏하면 한 질을 이루었다”고 하여, 척독의 왕래가 빈번하였음을 말하였다. 『백담청연집』은 박지원과 이덕무 등이 주고받은 시문과 척독의 선집이었다.⁴⁶⁾

그들은 그저 실용의 편지글로서가 아니라, 한 편 한 편의 작품을 완성하는 마음으로 척독의 제작에 정성을 쏟았다. 척독은 깊은 정의 울림, 삶의 이면을 절묘하게 포착해 내는 주제, 함축적이면서도 경쾌한 특유의 표현 방식 등에 의해 당시 일군의 작가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문학 양식의 하나로 애호되었다.⁴⁷⁾ 척독의 매력은 무엇보다도 생활을 예술의 영역으로 전환시킨다는 점에 있다. 짧은 글로 간단한 연락이나 메모를 전하던 일상적인 글은 척독의 새로운 발견과 함께 미학적 차원으로 그 위상을 달리한다. 적은 글자 속에 생활 속에서 느끼는 감흥을 아름답고 함축적으로 그려내는 솜씨는 척독만이 가지는 매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6) 심경호, 앞의 논문, 107~108쪽.

47) 정민, 앞의 논문, 50쪽.

따라서 척독은 수준 높은 문학예술로서 전혀 손색이 없다. 단순히 논변이나 소식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던 실용의 성격에서 벗어나 문예적인 산문의 성격을 지닌 것이다. 척독은 예술적 깊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심오한 철학까지 담고 있고, 작가만의 독특한 개성을 유감없이 드러내는 한 편의 문학작품이다. 이 절에서는 잘 쓴 편지는 한 편의 훌륭한 문학 작품이 될 수 있음을 학생들이 인지하고, 척독 작품의 내용적 · 수사적 특성들을 감상하도록 지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편지글을 통해 학습자들의 문학적 감상력을 높이고 학생들이 자신의 글쓰기에도 이를 활용해 볼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본 절의 목적이다.

척독의 내용적인 특성에 따라 본 절을 ‘진솔한 감정의 표현’, ‘일상의 재발견과 표현’, ‘사회 · 현실의식의 표현’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비유 · 인용 · 묘사 등의 수사적인 특성을 아울러 살펴보고자 한다.

일기가 자신만을 대상으로 쓰는 글인데 반해, 편지는 받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쓰는 글이다. 그러므로 단순한 소식이나 감정전달의 목적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담더라도 보다 아름답고 수사를 가미한 문장을 쓰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윗사람에게 올리거나 학문적인 견해를 담은 공적인 편지의 경우에는 격식을 무시할 수 없고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절제된 표현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개인간의 정감을 나누는 사적인 편지인 경우는 받는 한 사람을 대상으로 쓰는 것이므로 자신이 경험한 느낌을 보다 자유롭게 표현할 수가 있다.

특히 척독의 작가들은 문장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아름답게 꾸미고자 노력한 흔적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척독은 결코 시간이 없어 짧게 쓴 것이 아니다. 긴 편지를 쓰는 것보다 더 큰 노력을 기울여 작품성을 의식하고 제작된 글이다. 척독은 일반 편지글과는 달리 읽고 나면 길게 여운이 남는다. 정경이

떠오르고, 그림이 그려진다. 절제된 비유와 고사와 시, 속담 등을 인용하여 할 말을 대신하기도 한다.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경치를 묘사하여 더 큰 감동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런 척독은 산문보다 오히려 시에 더 가깝다.⁴⁸⁾

이러한 표현들은 자신의 정감과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데 더 큰 효과를 준다. 척독 작품에 나타난 여러 수사적인 표현들을 감상함으로써 학생들이 편지가 갖는 아름다움을 느끼고, 이러한 표현들이 주는 효과를 생각하여 자신의 글쓰기에도 적용해 보도록 한다.

(1) 진솔한 감정의 표현

편지는 진실성을 갖추고 있다. 편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잘 아는 사이에 오가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신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감이 진실하다. 즉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한다. 따라서 다른 어떠한 종류의 글보다 편지글에서 작자의 삶과 생활 그리고 거기에서 느끼는 정감 등을 보다 잘 이해하게 한다.

또한 편지글에는 서정성이 농후한 작품이 많다. 잘 아는 가까운 사이에 오가는 편지는 개인의 감정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 내용이나 대상에 따라 또 표현 방법이 서사이거나 의론이거나를 막론하고,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서정성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⁴⁹⁾

이러한 편지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글이 바로 척독이다. 척독에서는 친밀한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의 진실한 모습이 매우 잘 드러난다.

48) 정민, 앞의 논문, 58쪽

49) 권호, 앞의 책, 202~203쪽.

조선 문인들에게 감정의 과다한 노출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금기시되었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에서나 그러한 일탈이 허용되는 정도였다. 그러나 척독에서는 벗들에 대한 인간적인 그리움의 감정을 참신하고도 섬세한 표현으로 드러내고, 삶의 경험을 고백하는 방편으로 삼으며, 또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자아상의 형상화를 문학적 표현을 통해 드러낸다. 지금까지의 한문 편지에서 표현하지 않았던 개인의 사적인 감정과 인식, 그리고 일상 속에서의 소소한 경험들이 문학의 범주 안으로 들어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척독 작품을 중심으로 ‘진솔한 감정’의 표현 수단이라는 편지의 특성을 학습하고, 학생들이 편지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도록 지도한다.

<예1>

※ 이 편지는 이덕무^o가 자신의 조카이자 마음의 벗인 이광석^o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움의 감정이 진솔하게 표현’된 부분에 유의하면서 편지를 감상한 후, 다음 학습활동을 해 봅시다.

늘 외로이 앉아서 자네를 생각하다가 끝내 볼 수가 없을 때에는 ‘저 사람도 나를 생각하기를, 내가 자기를 생각하는 듯이 하겠지.’ 생각하면, 그제야 마음이 편안해지더군. 우리 두 사람의 생각이 하늘에 뻗치는 무지개나 안개가 된다면 아무리 천 리 먼 곳이라도 날아가서 만날 수 있겠지.⁵⁰⁾

[참고]

심계 이광석(李光錫)은 이덕무의 조카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덕무에게 조카일 뿐 아니라 뜻을 함께 하는 문학적 동지이기도 했습니다. 이덕무는 박지원이나 박제가, 이서구, 유득공 등과 사상을 같이 하며 문학 활동을 함께 했지만 인간적인 면에서는 이광석과 가장 친했습니다. 그래서 ‘심계는 비록 나와 나이차는 있지만 마음이 서로 통하므로 흥금을 털어놓는 사이’이며 ‘내 마음을 알아줄 이는 오직 심계뿐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학습활동>

1. 이 편지는 이덕무가 자신의 조카이자 마음의 벗인 이광석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두 사람은 평소 어떤 사이였을까요?
2. 글쓴이가 상대방을 그리워하고 아끼는 마음이 진솔하게 표현된 부분을 찾아 봅시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 이유도 함께 말해 봅시다.
3. 글쓴이는 ‘두 사람의 생각’을 무엇에 비유했나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4.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답장을 써 봅시다.
5. 여러분은 이러한 마음을 갖게 하는 친구가 있나요? 그 친구에게 그리움과 애정을 담아 편지를 써 봅시다.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해 보세요.)

위의 글은 이덕무가 죽절이었던 심계(心溪) 이광석에게 띄우는 편지다. 이덕무(1741~1793)는 『아정유고(雅亭遺稿)』 券七, 券八, 卷十一, 그리고 『간본아정유고(刊本雅亭遺稿)』 卷之六, 券之七에 이르는 다섯 권에 걸쳐 37명의 수신자에게 총 238편이라는 많은 양의 척독 작품을 남겼다.⁵¹⁾ 이덕무가 남긴 척독은

50) 이덕무 저, 민족문화추진회 역, 『(국역)청장관전서Ⅲ』 「아정유고7」, 민족문화추진회, 1979.

51) 「아정유고」의 권9, 권10의 결론 부분이 ‘書’장르를 신고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덧붙여 생각해보면 이덕무가 척독이라는 장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힘써 창작했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권정원의 다음 논문에는 이덕무 서신의 전체적인 개괄과 수신자별 분류, 수신횟수, 교육관계 등을 자세히 밝혀두고 있다. 권정원, 「靑莊館 李德懋의 尺牘 研究」, 『동양한문학연구』 제15집, 동양한문학회, 2001; 권정원, 「靑莊館 李德懋의 尺牘 研究」, 釜山大教育大學院, 석사학위논문, 1996.

이덕무의 척독에 대한 기존 연구는 이미 상당한 성과를 축적해 놓고 있다. 김성진은 조선후기 소품

양적으로도 방대할 뿐만 아니라, 내용면에 있어서도 대단히 이채롭다. 이덕무는 척독에서 벗들에 대한 인간적인 그리움의 감정을 섬세한 표현으로 드러내고, 삶의 경험을 고백하는 방편으로 삼으며, 또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자아상의 형상화를 문학적 표현을 통해 드러낸다. 그에게 척독은 자신의 인간적인 면모를 낭만적으로 드러내고 고백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⁵²⁾

이덕무에게 이광석은 조카일 뿐 아니라 뜻을 함께 하는 문학적 동지였다. 이덕무는 친우(親友)들에게 수백 통에 달하는 편지들을 남기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많은 수의 편지가 이광석에게 보내는 것이었다.⁵³⁾ 그가 이광석에게 보낸 척독에는 내면세계의 섬세한 변화를 담은 그리움의 토로와 상대의 학문과 정신의 안부를 진지하게 묻는 내용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위의 편지에서도 정신적 벗인 그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과 그리움의 감정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매우 진솔하고 섬세하게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사람의 생각이 만일 하늘까지 뻗치는 무지개나 안개로 변화한다면 아무리 천 리 먼 데라도 날아가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할 만큼 두 사람의 사이가 각

체 산문의 유형을 살피는 가운데 ‘尺牘類’에서 연암과 함께 이덕무의 척독을 대표적으로 다루었다.(김성진, 『朝鮮後期 小品體 散文 研究』,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1991.) 권정원은 이덕무 척독의 전모를 다루면서 그 전반적인 특징을 ‘내용의 진솔성’과 ‘표현의 심미성’이라고 보고, 이덕무의 척독으로 인해 척독이 본격 ‘문예물’로 산문사에 자리잡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권정원, 『靑莊館 李德懋의 尺牘 研究』, 『동양한문학회연구』 제15집, 동양한문학회, 2001.) 홍인숙은 이덕무의 척독에 다른 작가의 어떤 척독에서보다 작가의 ‘인간적인 측면’과 ‘개인으로서의 표지’가 강하게 드러난다고 지적하였다.(홍인숙, 『李德懋 척독 연구-내면, 혹은 ‘사적 자아’의 발견-』, 『한국한문학회연구』 제33집, 2004.)

52) 안대회는 『청장관전서』에 누락되었던 그의 소품문 ‘적언찬’을 소개하면서 이덕무 소품문의 미학이 주변적이고 소소한 관심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우주나 세계, 심성과 정치, 윤리와 도덕을 중심에 놓고 사고하고 서술하는 儒經과는 다르게 이들은 작게는 鶴이나 메추라기, 劍, 鬪, 물고기, 뱀과 같은 미미한 사물에서부터 사대부의 취미생활과 풍속에 관심을 기울였다. 유가를 신봉하는 사대부의 답론에 끼이기 어렵거나 끼인다 하더라도 문장으로 서술하기를 꺼려한 내용까지 저술의 영역에 포함시켰다. 주변적인 관심사가 드디어 문학언어의 힘을 빌려 大雅之堂에 오른 것이다.’(안대회, 『이덕무 소품문의 미학』, 『고전문학연구』 24집, 2004.)

53) 이덕무가 이광석에게 보낸 편지는 모두 83편인데, 이것은 34장 68면(각 면 10행 20자)의 분량에 이른다. 이는 한 사람에게 보낸 척독으로는 어느 누구의 문집에서도 유래가 없을 만큼 방대한 양이다. 내용적인 면에서도 가장 개인적이면서도 진솔한 모습을 많이 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덕무가 인간적으로 이광석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별하였음을 보여준다. 외로울 때면 생각나고 생각하다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심정이겠지 하면 그때서야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말하고 있다. 벗에 대한 그리움의 감정이 매우 섬세하고도 참신하게 표현되어 있다.⁵⁴⁾

편지글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더욱 좋다. 편지글이 상대의 마음에 감동을 심어 준다면 편지글의 일차적인 목적은 충분히 달성된 것이다. 편지글이 상대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쓰는 이의 진솔한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편지를 쓰라고 하면 의례적이고 상투적인 표현의 일색이 되기 쉽다. 이것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데 아직 많이 서툴기 때문이다. 상대에 대한 그리움의 감정을 진솔하고 섬세하게 전달한 이덕무의 편지글을 감상함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고 참신하게 표현하는 법을 학습하고 창의적인 글쓰기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박지원이 친구인 홍대용에게 그리움과 안타까움의 감정을 표현한 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박지원(1737~1805)은 『연암집』 券 2에 27수, 券 3에 22수, 券 10에 3수 등 모두 52수의 서(書)를 남겼고, 이와는 별도로 권 5 『영대정잉묵(映帶亭脛墨)』에 50수와 박제가와 이덕무의 문집에 3수 등 모두 53수의 척독을 남겼다. 『영대정잉묵』은 1772년 10월, 연암의 나이 35세 때 엮은 것이다. 그의 척독은 30대를 전후한 젊은 시절에 쓴 것들이다.⁵⁵⁾ 박지원의 척독은 문학적 성취 면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일상생활의 애환에서, 벗들간의 진한 우정, 점잖은 충고와 신랄한 풍자, 길길대는 해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 참신하고 자극적인 문장에다가 생활의 체험의 내용과

54) 권정원, 앞의 논문, 18~19쪽.

55) 연암의 척독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김성진, 「조선후기 소품체 산문 연구」, 부산대 박사논문, 1991.

안대회, 「더 이상 짧을 수 없는 편지-박지원의 척독소품」, 『문학과 경계』 통권 제 3호, 2001.

정민, 「연암 척독소품의 문예미」, 『한국한문학연구』 제 31집, 2003.

정을 표현하고, 또 작가의 독특한 우울과 분노, 해학과 농담을 담고 있어 산문으로서 읽는 재미가 진진하다.⁵⁶⁾

<예2>

※ 이 편지는 조선시대 문인인 박지원이 잠깐 마실 간 사이에 자신을 만나러 왔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간 홍대용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인용된 고사'에 유의 하면서 편지를 감상하고, 다음의 학습활동을 해 봅시다.

간밤 달이 환하길래 박제가를 찾아가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집 지키던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풍채가 좋고 수염이 누런 말을 탄 손님이 벽에다 글씨를 써 놓고 갔습니다.” 등잔으로 비춰 보았더니 바로 그대의 글씨입니다. ㉠손님 온 것을 알려주는 학이 없음을 한하다가, ㉡문에다 ‘봉(鳳)’자를 써놓기에 이르렀군요. 미안하고 송구합니다. 앞으로 달 밝은 밤에는 감히 밖에 나가지 않을 작정입니다.⁵⁷⁾

<학습활동>

1. 위의 편지에는 두 가지 고사가 인용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서호(西湖) 살던 임포(林浦)는 호수에 나가 놀고 있을 때 손님이 찾아오면 기르던 학이 와서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 고사의 내용을 토대로 밑줄 친 ㉠의 내용을 이해해 봅시다.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나요?

2. 진(晉)나라 때 여안(呂安)이 혜강(嵇康)과 가까웠는데, 하루는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혜강은 없고 평소 싫어하던 그의 형 혜희(嵇喜)가 나와 맞이하자, 들어가지 않고 문 위에 ‘鳳(봉황 봉)’자를 써두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혜희는 자신을 봉황으로 여긴다는 말로 알고 기뻐했으나, 이는 사실 파자하면 ‘凡鳥(범조: 평범한 새에 불과함)’라는 뜻으로 여안이 혜희를 기롱한 것이었다는군요. 이 고사의 내용을 토대로 밑줄 친 ㉡의 내용을 이해해 봅시다. 글쓴이는 어떤

56) 안대회, 앞의 논문, 254~255쪽.

의미로 이 고사를 인용한 걸까요?

3.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은 이 편지가 의미하는 바를 잘 이해했을까요? 이해할 수 있었다면 왜 그럴까요?

4. 친구 간에 서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편지를 썼던 경험을 말해봅시다.

연암이 잠깐 이웃에 마실 간 사이에 달빛을 따라 찾아왔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간 홍대용에게 사과를 곁하여 보낸 글이다. 저녁상을 물리고 등두렸이 떠오른 달을 보다가 무료함을 못 견디 박제가의 집을 찾아갔다. 그리고는 같이 놀자며 집으로 데려 왔다. 그 사이에 누군가 다녀갔다는 하인의 전갈에 벽에 써놓은 글씨를 보고서야 다녀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다. 예전 서호(西湖) 살던 임포(林逋)는 호수에 나가 놀고 있을 때 손님이 찾아오면 기르던 학이 와서 알려주었다. 이 고사를 슬쩍 끌어다가 간발의 차이로 엇갈린 길을 안타까워했다.

여기에 짝을 맞추어 쓴 ‘제문지봉(題門之鳳)’도 고사가 있다. 진나라 때 여안(呂安)이 혜강(嵇康)과 가까웠는데, 그의 집을 찾았다가 혜강은 없고 평소 백안시하던 그의 형 혜희(嵇喜)가 나와 맞이하자, 들어가지 않고 문 위에 ‘鳳’자를 써두고 가버렸다. 혜희는 자신을 봉황으로 여긴다는 말로 알고 기뻐했으나, 이는 사실 파자하여 ‘凡鳥’로 기롱한 것이었다. 자신을 보러 왔는데 정작 맞이한 것은 손님을 붙들어 둘 줄 모르는 물색없는 하인 녀석뿐이어서 미안하단

57) 박지원 지음, 김철조 옮김, 『그렇다면 도로 눈을 감고 가시오』, 학교재, 1997.

말을 이렇게 했다.⁵⁸⁾

달 밝은 밤에는 다시는 나가지 않고 기다리겠다는 말이 미소를 머금게 한다. 이런 글은 참 정취가 있다. 아련하게 그날 밤의 풍경이 정경으로 떠오른다. 그저 사무적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대신, 따뜻이 마음을 감싸 안는 우정의 온기를 담아냈다.

척독은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동지적 결속을 다지고, 그들만의 유대감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다.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고사나 시, 속담 등을 인용하여 그들은 유대감을 강화시키고 즐거움을 배가하고자 하였다. 고사나 시를 원용한 표현은 구차한 설명이 필요 없으므로 간략함에 주안점을 두는 척독에 적합하였다.

친한 친구 사이에는 서로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비밀스런 편지를 쓸 수 있다. 서로 잘 알고 있는 고사의 내용을 인용하여 자신들만이 공유할 수 있도록 쓴 박지원의 편지글을 통해 학생들은 편지가 두 사람 사이의 공유할 수 있는 생각과 표현을 담고 있다는 특성을 알게 되고, 옛 문인들의 번득이는 기지를 본받아 창의적인 글쓰기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편지는 이덕무가 모친상을 당한 후의 슬픈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다. 이덕무는 자신이 느끼는 슬픔과 외로움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척독에서는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볼 수 있다. 자신의 내면의 감정을 표출함에 있어 시적 비유를 많이 활용하는데, 이러한 기법은 문장의 서정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如’字나 ‘若’字를 사용하여 ‘마치 ~와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활용한다. 이러한 표현법은 심중의 생각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대상에 대한 인상을 보다 선명하고 생생하게 전달해 줄 수 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느끼는 인생의 무상함이나 벗에 대한 그리움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그 심중을 보

58) 정민, 앞의 논문, 61~63쪽.

다 잘 나타낼 수 있다. 59)

<예3>

※ 이 편지는 이덕무가 25세에 모친상을 당하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윤가기⁵⁹⁾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에 유의하면서 편지를 감상하고, 다음 학습 활동을 해 봅시다.

을유년이 마치 꼬리도 잡을 수 없이 구멍으로 다 들어간 뱀처럼 가버렸으니, 이 아우는 무슨 정황이 있었습니까? 눈물만 흐르는군요. 선달 그믐밤에 초연하게 홀로 앉아 등불로 눈을 삼고 붓으로 혀를 삼아 손가는 대로 7조의 소문小文을 쓰고 누웠는데 모두 슬픈 말 뿐입니다. 내가 목석같은 사람이 아닌데야 그렇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⁶⁰⁾

[참고]

⁵⁹⁾윤가기(尹可基)의 자(字)는 증약(曾若)이며 이산(尼山) 윤씨 가문의 서얼 출신입니다. 이덕무가 윤가기에게 보낸 책독은 모두 18편에 이르는데, 보낸 횟수나 내용을 보면 두 사람의 친분이 매우 두터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윤가기 또한 이덕무와 같은 서얼이었기에 둘의 교류는 일찍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학습활동>

1. 비유적인 표현을 모두 찾아봅시다.
2. 이 편지를 쓴 사람의 심정은 어떠할지 상상해 봅시다.
3. 편지에 사용된 비유적 표현들이 글쓴이의 기분을 표현하는데 어떠한 기능을 하나요?

59) 권정원, 앞의 논문, 30~33쪽.

4. '꼬리도 잡을 수 없이 구멍으로 다 들어간 뱀'을 다른 여러 가지 표현으로 바꾸어 '한해가 흔적도 없이 가버린 쓸쓸한 느낌'을 표현해 봅시다.

이덕무는 25세에 모친상을 당하는데, 위의 예문은 이덕무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해를 보내면서 자신의 심경을 쓴 편지이다. 비유적 표현들의 참신함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그로 인한 슬픔의 감응력도 배가되어 전달되고 있다. 한해가 흔적도 없이 가버리는 느낌을 뱀이 구멍으로 들어가 버리듯 사라졌다고 표현하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해의 마지막 그믐밤을 보내는 외로움을 드러낸다. 그 슬픔을 글로 적는 모습을 '등불로 눈을 삼고 붓으로 혀를 삼아' 썼다고 묘사하여 부모를 잃은 자식의 애통함을 절실하게 고백하는 글을 썼음을 짐작케 해준다.⁶¹⁾

학생들은 비유적 표현을 직접 찾아보고, 이러한 비유적 표현이 글쓴이의 슬픈 감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알게 된다. 편지에 나온 비유적인 표현을 학생들이 직접 다르게 표현해 봄으로써 학생들은 비유적인 표현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되고, 창의적인 표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2) 일상의 재발견과 표현

척독은 기존의 편지들이 다루던 고답적인 소재에서 벗어나 일상의 삶 자체를 문학의 주요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일상의 생활에서 느끼는 감정을 진솔

60) 이덕무 저, 민족문화추진회 역, 『(국역)청장관전서Ⅲ』 「아정유고7」, 민족문화추진회, 1979.

61) 홍인숙, 앞의 논문, 223~224쪽.

히 토로하고자 하였고, 논리전개에 의한 서술방식보다는 직관에 의해 보고 느낀 대로 서술해 나간다.

척독은 익숙한 사물 속에서 찾아내는 새로운 의미의 발견을 중시한다. 이 사물과 저 사물을 유비(類比)하여 드러내는 사물 이해의 독특한 방식,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 속에서 문득 깨닫는 삶의 철학을 투시하고, 지혜의 구슬을 주워 담는다. 이는 섬광처럼 스쳐 가는 생각, 나만이 가졌던 느낌, 새롭게 바라본 대상의 낯섬, 관련 없어 보이는 사물과의 돌연한 연결로 나타난다.⁶²⁾

옛 문인들이 우리 주변의 사물이나 일상의 소박한 체험을 바라보는 시각을 통해 학생들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일상의 작은 것이나 남의 일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아이들에게 자신과 주변을 되돌아보도록 하고, 평범한 일상에서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교육은 학생들이 자신과 일상을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고 매사에 감사하도록 이끌어 학생들의 인성교육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학생들은 평범한 일상이라도 편지의 좋은 소재가 되며, 거기에 자신의 창의적인 생각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예1>

※ 이 편지는 조선시대 문인인 박지원이 친구인 유한준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소재의 연결’에 유의하면서 편지를 감상하고, 다음 학습활동을 해 봅시다.

나무 심고 꽃모종하는 것은 마땅히 진(晉)나라 사람 왕희지의 글씨처럼 글자를 억지로 짜 맞추지 않으면서 행간이 절로 시원스레 끝나야만 합니다.

62) 정민, 앞의 논문, 62~68쪽.

<학습활동>

1. 글쓴이는 나무 심고 꽃모종하는 것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나요?
2. 왕희지는 유명한 중국의 서예가입니다. 그의 글씨체가 어떠했을지 상상해 봅시다.
3. 나무 심기와 꽃모종을 할 때, 그 간격을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4. 글쓴이는 편지의 소재를 어디에서 찾고 있나요?
5.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소재의 유사점을 찾아, 비유의 방식을 사용하여 짧은 편지를 써봅시다.

이 편지는 박지원이 창에 유한준에게 보낸 편지이다. 나무 심고 꽃모종하는 일을 전혀 엉뚱하게 왕희지의 서법과 비교했다. 이 돌연한 연상이 읽는 즐거움을 준다. 글자 하나하나가 나무 한 그루, 꽃 한 모종이 되고, 글 한 줄 한 줄은 열지어 심은 한 고랑이 되었다. 나무는 너무 촘촘히 심어서는 안 되고, 또박또박 일정한 간격으로 심어도 제격이 아니라는 말이다. 또 이랑과 이랑 사이는 널찍한 공간을 두어 시원스럽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이렇게 했다. 실제 왕희지의 글씨를 보면 행간이 시원스럽고 자간이 일정치 않아, 세로 줄은 듬성듬성하고 가로줄은 열이 맞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전체의 조화는 짝 짝여 빈틈이 없다. 이렇듯 꽃밭의 화초도 질서 있는 가운데 변화를 주고, 충분

히 발육할 수 있도록 널찍널찍 심어야 한다는 뜻이다.⁶³⁾

편지는 흔히 특별한 용건이나 목적이 있어야만 쓴다고 생각하기 쉽다. 때문에 학생들에게 편지를 쓰는 일은 더욱 어렵고 멀게만 느껴진다. 박지원의 짧은 편지글을 통해 학생들에게 일상의 작은 경험도 편지의 훌륭한 소재가 될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학생들이 편지에 보다 손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한다. 편지쓰기 뿐만 아니라 글쓰기에서 글감 찾기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학생들에게 생활의 작은 경험이 모두 글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학습이 될 것이다.⁶⁴⁾ 또한 나무 심고 꽃모종하는 것을 왕희지의 글씨체에 비유하는 인식의 전환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상상과 창의적인 글쓰기로 나아가도록 돕는다.

<예2>

<p>※ 이 편지는 허균이 남궁생에게 쓴 편지입니다. 글쓴이가 ‘별을 보고 느낀 점’에 유의하면서 편지를 감상한 후, 다음 학습활동을 해 봅시다.</p> <p>별 한 통을 오동나무 그늘에 두고 아침, 저녁 살펴봅니다. 별들의 법도가 무척 엄격하더군요.</p> <p>그런데 국가의 법도가 별보다도 못하니, 사람을 실망케 합니다.⁶⁵⁾</p> <p><학습활동></p>
--

63) 정민, 앞의 논문, 64쪽.

64) 「편지놀이를 통한 정 주고 받는 글짓기 교육」에는 주변에서 편지쓰기의 소재를 찾는 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1. 독서한 후 감명 깊었거나 신기했던 일, 2. 여행가서 보고 들은 것 중 알리고 싶은 일, 3. TV 라디오에서 보고 들은 것 중 알리고 싶은 일, 4. 이웃이나 길거리에서 보고 들은 것 중 알리고 싶은 일, 5. 어른들이나 친구들로부터 들은 것 중 알리고 싶은 일, 6. 마음에 드는 동시, 동요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자기 소감을 부쳐 보는 일, 7. 공부한 것 중 모르던 것을 깨우쳤을 때의 기쁨 또는 궁금증을 주고받은 일, 8. 위인들의 훌륭한 점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는 일, 9. 졸업 후 장래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는 일, 10. 그 외 자기가 실제로 체험한 즐거웠던 일, 고되었던 일, 신기했던 일, 억울했던 일, 불쌍했던 일, 웃었던 일, 고마웠던 일 등등

1. 벌의 습성과 생태에 대해 조사해 봅시다. 벌들의 사회구조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요?
2. 글쓴이는 벌집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나요?
3. 인간이 만든 국가의 법도가 벌보다 못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4. 주변의 사물을 관찰하면서 새롭게 느끼게 된 점을 적어봅시다.
5. 주변의 사물에서 새롭게 느끼게 된 점을 위의 편지를 패러디하여 써 봅시다.

허균이 남궁생에게 쓴 짧은 편지다. 허균(1569~1618)의 척독은 총 177편이며, 가장 긴 것이 157자이고 가장 짧은 것이 17자이다. 수신자의 신분도 매우 다양해서 정승 · 판서로부터 도인과 승려, 서얼과 역관, 화가와 기생에 이르기까지 온갖 계층이 망라되어 있었다. 허균은 명나라 문인들의 척독을 모은 책 『명척독(明尺牘)』을 편집하기도 했으며, 그의 문집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에서 ‘서’와 ‘척독’을 분리시켜 편찬하는 등, 서와 척독의 차별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작품 창작을 하였다. 일상생활에서의 언어 표현을 적재적소에 인용하면서 분위기를 반전시킨다든지, 함축성 깊은 문장으로 의미를 다층적 차원으로 전환시킨다든지, 일순간 일어나는 감흥을 절묘하게 포착하여 아름다운 언어로 그려내는 등의 수법은 허균의 척독 쓰기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⁶⁵⁾

65) 허균 지음, 민족문화추진회 역, 『(국역)성소부부고Ⅲ』, 민족문화추진회, 1982.

위의 편지에서 허균은 주위의 평범한 사물에서 편지의 소재를 찾고 있다. 별들의 법도에 인간의 법도를 연결하여, 바르지 못한 인간의 법도를 꾸짖고 있다. 이름 없는 작은 것 하나에도 우주의 진리가 스며 있는 법이다. 하지만 정작 우리 삶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교사는 학생들이 주변의 작고 가까운 것에서 삶의 철학과 의미를 스스로 찾아보도록 지도한다.

다음 편지는 허균이 화가인 이정에게 보낸 편지로, 자신이 살고 싶은 집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가 묘사하고 있는 세계는 화려하고 허황된 모습이 아니라 일상의 평화롭고 소박한 모습을 하고 있다. 척독은 일상을 세밀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자신의 눈으로 바라본 인물이나 사물 하나하나의 움직임과 형상을 묘사하여 마치 눈앞에 그것을 펼쳐 보이듯이 서술하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법은 글을 보고 있노라면 머리 속에 그려지는 형상이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한 착각을 들게 한다.

<예3>

※ 이 편지는 허균이 화가인 이정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글쓴이가 살고 싶은 집을 묘사한 부분’에 유의하면서 편지를 감상하고 다음 학습활동을 해 봅시다.

큰 비단 한 다발에 금빛, 푸른빛 등 다양각색의 물감을 모두 우리 집 하인에게 맡겨서 서경으로 보냈네. 모름지기 이렇게 그려 주시기 바라네.

산을 등지고 시냇물을 마주한 집에 온갖 꽃과 늘씬한 대나무 천 그루를 심으시게. 가운데로는 남쪽 대청을 열고, 앞마당은 넓게 하여 석죽화(石竹花)와 금선초(金線草)를 심고 괴석과 오래된 화분을 벌여 놓으시게.

동쪽 깊숙한 방에는 휘장을 걸었는데, 천 권의 책을 진열하고, 구리로 만든 병에는 공작의 꼬리를 꽂으며, 비자나무로 만든 책상엔 박산향로(博山香爐)를 놓아 주시게나. 서쪽으로는 창문을 열었는데 우리 소랑(小娘)이 나물로 죽과 국을 끓

66) 김성진, 「許筠의 尺牘에 대한 一考察」, 『한국한문학회』 제32집, 한국한문학회, 2003.

이때 손수 우유술을 걸러서 신선로에 붙고 있고, 나는 집 안에서 방석에 기대어 누워서 책을 보고 있으며, 그대는 여러 벗과 내 주변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 걸 그려 주시게. 모두가 두건에 비단 신을 신고 있으며, 도사의 옷에는 허리띠는 매지 않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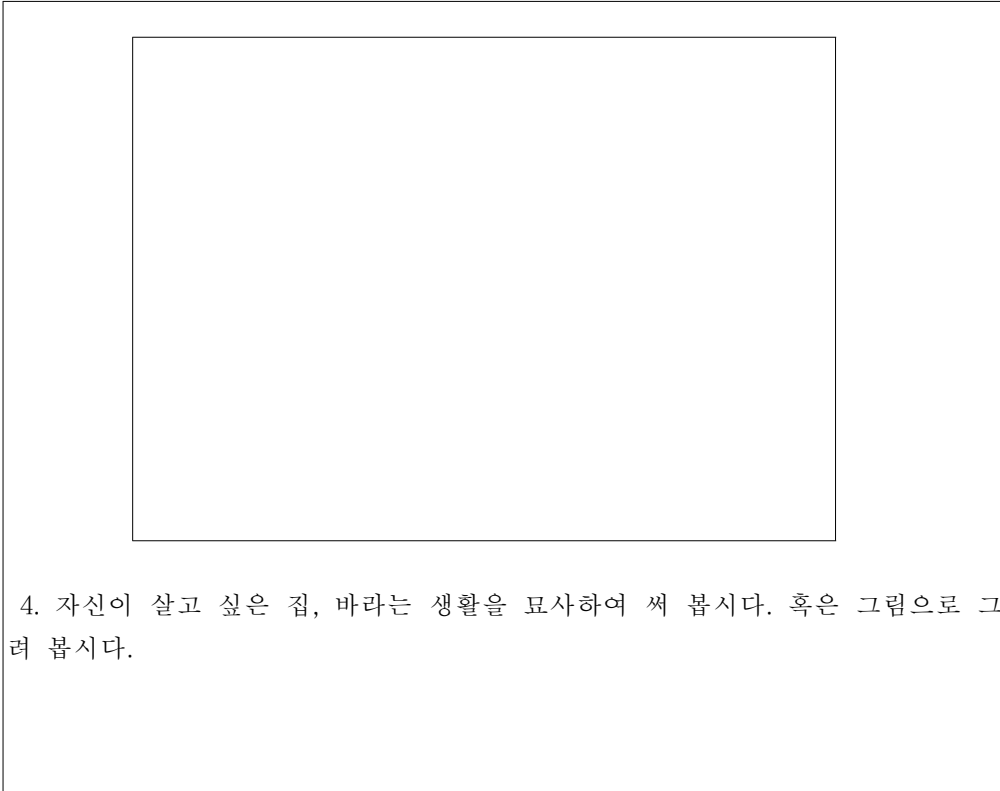
한 가닥 향 연기가 주렴 밖에서 피어오르는데, 한 쌍의 학은 바위의 이끼를 쪼고 있고 어린 아이는 빗자루를 들고 떨어진 꽃을 쓸고 있는 걸 그려 주시게.

이 정도면 인간의 사업이 끝나는 것일세. 그림이 다 그려지면 태진공(台徵公)이 돌아오는 편에 부쳐 주시게나. 간절히 바라고 바라네.⁶⁷⁾

<학습활동>

1. 글쓴이가 꿈꾸는 집은 어떤 곳일지 상상해 봅시다.
2. 그가 생각하는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3.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 그렸을 그림을 상상하여 그려 봅시다. (전부 그려 넣기가 어려우면, 글쓴이가 표현한 것 중 맘에 드는 한 장면만 자세히 그려도 좋아요.)

67) 허균 지음, 김풍기 옮김, 앞의 책, 64~66쪽.



허균이 1607년 정월에 평양에 가 있던 화가 이정李楨에게 그림을 그려줄 것을 부탁하며 보낸 편지이다. 이 편지에는 그가 꿈꾸는 행복한 삶의 모습이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방 안에는 온갖 책이 가득하고 문 밖에는 대숲이 서늘한 자태로 서거인다. 아내는 소박한 음식에 술을 준비하고 있으며, 나는 벗들과 같이 편안한 입성으로 답소한다. 학과 아이가 마음껏 노니는 곳, 이런 곳이야말로 진정한 무릉도원이다. 세상 번우한 일 모두 잊고 사랑하는 아내와 벗들이 함께 하는 곳, 아름다운 자연과 자유로운 생각이 있다면 그것처럼 멋진 일이 어디 있겠는가. 험난한 삶 속에서 그가 간절히 바란 것은 이정의 그림이 아니라 그 그림이 담고 있는 무릉도원일 것이다.

그가 진정으로 꿈꾸는 삶은 호화롭고 명예로운 삶이 아니다. 사람들은 자신

의 거처를 누추해서 살 수 없다 하지만 정말 누추한 것은 더러운 명예를 좇는 일, 죽고 나면 이름도 함께 썩어 없어지고 마는 것이다. 세상에 살다간 아무런 자취도 남지 않는 일, 평생을 아등바등 하다가 결국 아무 것도 이룬 것 없이 손가락질만 받다가 죽는 것이다. 도연명은 무릎을 겨우 들일만한 좁은 집에서 비바람도 가리지 못할 구차한 살림을 살았지만, 그의 이름은 백대의 세월에도 지워지지 않고 못사람의 추앙을 한 몸에 받는다. 축대 지붕 아래에도 우주를 덮을 만큼의 커다란 자유가 있다고 허균이 호기롭게 말한다.

학생들에게 글쓴이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상상해 보도록 하고 자신이 바라는 생활상은 어떤 것인지 묘사해 보도록 지도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대상을 정밀하게 묘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더불어 자신이 꿈꾸고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상상해 보고, 일상의 소박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

3) 사회·현실의식의 표현

흔히 편지글에는 풍자와 해학의 정신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척독은 짧은 글 속에 충고나 비판을 담은 풍자와 경쾌한 해학이 살아 있다. 척독에서는 이를 위해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일부러 돌려서 말하고, 길게 말해야 할 것을 한 두 마디로 이야기하며, 비유 속에 할 말을 감춰두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글은 언뜻 보아서는 분명한 의미를 알 수 없다. 여러 번 곱씹어야 본 뜻이 드러난다. 이것은 척독의 문학적인 면모를 잘 드러내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옛 문인들의 사회·현실의식을 통해 학생들에게 현실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줄 수 있다.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현실 문제에 고민

하면서 학생들은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고,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풍자와 해학미가 살아 있는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표현이 갖는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자신의 글쓰기에 이를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1>

※ 이 편지는 조선시대 문인인 이덕무의 편지입니다. 이덕무는 학문의 경지가 높고 사람됨이 뛰어났지만 서얼 출신으로 벼슬길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가난을 피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러한 ‘자신의 처지를 편지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유의하면서 편지를 감상하고 다음 학습활동을 해 봅시다.

내 집에 가장 좋은 물건은 다만 『맹자』 7책뿐인데, 오랫동안 굶주림을 견디다 못하여 돈 2백 냥에 팔아 밥을 잔뜩 해먹고 회회낙락하며 영재에게 달려가 크게 자랑하였소. 그런데 영재의 굶주림 역시 오래된 터이라, 내 말을 듣고는 즉시 『좌씨전』을 팔아 그 남은 돈으로 술을 사다가 나에게 마시게 하였으니, 이는 자여씨가 친히 밥을 지어 나를 먹이고 좌구생이 손수 술을 따라 나에게 권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소. 그리하여 맹씨와 좌씨를 한없이 찬송하였으니 우리가 1년 내내 이 두 책을 읽기만 하였던들 어떻게 조금이나마 굶주림을 면할 수 있었겠소? 글을 읽어 부귀를 구하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술책이요, 당장 팔아서 한때의 취함과 배부름을 얻는 것이 보다 솔직하고 가식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야 참으로 알았소. 족하는 어떻게 생각하시오.⁶⁸⁾

<학습활동>

1. 이 편지의 글쓴이인 이덕무의 생애를 조사해 봅시다.
2. 이덕무에게는 어떠한 신분적 제약이 있었나요?

3. 글쓴이의 가난은 무엇 때문에 생긴 걸까요? (당대의 사회상과 연관지어 설명해 봅시다.)

4. 글쓴이는 책을 팔아 어떻게 했나요?

5. 선비에게 책은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6. 자신이 아끼던 책을 팔아 굶주림을 면할 수밖에 없었던 글쓴이의 심정을 상상해 봅시다.

7. 밑줄 친 부분에서 글쓴이가 사회와 현실을 바라보는 의식을 탐구해 봅시다.

8. 글쓴이는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책을 팔 수 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이 척독은 이덕무가 초시에 합격한 34세 이전, 적어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경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덕무는 서얼이라는 신분적 제약 때문에 벼슬의 길이 막혀 있었으므로 궁핍한 삶을 오랫동안 경험해야 했다. 그런 빈곤을 견디던 어느 날 이덕무는 오랫동안 굶주리던 끝에 결단을 내려 집안에서 제일 쓸만한 물건인 『맹자』를 팔아 밥을 해먹고, 유득공을 찾아가 그것을 크게 자랑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유득공 역시 선비가 책을 팔았다

68) 이덕무 지음, 권정원 편역, 『이덕무 산문선-책에 미친 바보』, 미다스북스, 2004, 151~152쪽.

는 사실에 대해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덕무의 말에 옳다구나 함세하여 즉시 『좌씨전(左氏傳)』을 팔아 함께 술을 마셨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맹씨와 좌씨가 자신을 직접 먹여준 것이나 다름없으니, 한없는 칭송이 나온다는 호기로운 녀살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장난스러운 태도는 동시에 한없이 글만 읽게 만드는 제도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으로 이어진다. 1년 내내 굶주리며 책을 읽기만 한다고 살방도가 생기지 않는다면 차라리 책을 팔아 끼니를 마련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글을 읽어 과거를 보고 입신양명하는 꿈이야말로 오히려 ‘요행을 바라는 술책’이라는 말에는, 과거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서열(庶孽)’, 반쪽 양반들의 현실이 해학적으로 표현되어 있다.⁶⁹⁾ 이덕무의 편지글을 통해 학생들의 당시의 사회상과 신분 제약의 불합리를 파악하고, 그것을 현대의 사회상과 연결지어 생각하는 힘을 갖게 한다. 또한 이덕무가 현실을 바라보는 의식과 그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통해 우리 고전이 갖는 해학미를 감상할 수 있다.

<예2>

※ 이 편지는 조선시대 실학자인 박지원이 유언호(兪彦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박지원이 ‘비판하고자 한 점과 그 표현법’에 유의하면서 편지를 감상하고 다음 학습활동을 해 봅시다.

어제 수레를 타고 하인을 거느리며 위엄 있게 왕림하셨는데, 때마침 더위를 식히려 도성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만나지 못하고 헛걸음을 하시게 했습니다. 우러르고 섭섭한 심정이 평소보다 곱절이나 컸더니 곧 편지까지 또 보내주시니 위로하고 살피주심이 참으로 깊습니다.

69) 홍인숙, 앞의 논문, 218~219쪽.

창 밖에는 수레와 말을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하루에도 수십 명입니다. 비천한 무리들의 발자국 소리가 천등을 치는 것 같아 처마가 무너지는 듯합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만 해도 집의 어린 자식놈이 글을 읽다가 화들짝 책을 내던지기도 하고 밥을 먹다가도 입에 든 음식을 뱉어버리고 고꾸라질 듯 뛰쳐나가 구경하더니 조금 지나서는 아예 나가보지도 않습니다. 비단 집의 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마을과 골목의 아이들 모두가 심드렁하게 여깁니다. 이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사람의 잘났고 못났고에 관계없이 다만 매일같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두어 자 높이의 외바퀴 초헌을 끌고 세력을 뽐내거나 하종별배들의 벽제(辟除)하는 호령소리만을 가지고는 거리의 아이놈들을 부럽게 하거나 기뻐 날뛰게 하여 엎어질 듯 뛰쳐나오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도 갑자기 평소 몸짓이나 얼굴을 바꿔 잔뜩 거드름을 피우며 목을 석 지나 빼 올리고 기세를 산더미처럼 뽐낸다면 과연 어떤 꼴이겠습니까?

지난날 안성 땅의 유응교가 비록 좀먹은 안장에 비루먹은 망아지를 타고 다녔을망정 정말 인간성에 훼손됨은 없었으며, 오늘날 송도의 신임 유수가 되어 크고 작은 깃발을 세우고 행차하더라도 평소의 행실에서 더 나아질 것이 없습니다. 송도의 호수가 구천(九千)보다 적지 않을 것이니 충성스럽고 믿음직한 호걸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요. 또 더군다나 그들의 지혜가 송도 유수의 어질고 못난 것쯤이야 족히 분별할 수 있는 터수에서야겠습니까?

우스갯소리입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⁷⁰⁾

[참고 1]

박지원은 조선 후기 실학자로, 여러 작품을 통해 지배층의 모순된 가치관과 무능을 비판하였습니다. 명분만을 중시하는 양반 계층을 비판하고 실용적인 가치관을 주장하였으며, 인재 등용의 모순과 신분 제도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작품으로는 벼슬아치와 양반들의 생활을 폭로, 풍자한 <양반전>, <허생전>, <호질> 등이 있어요.

[참고 2]

유언호(1730~1796)는 조선시대 문인으로 박지원과는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응교는 관직이름으로, 유언호가 서울에서 박지원과 친하게 교류하던 때를 말합니다. 지난날의 그는 비록 좀먹은 안장에 비루먹은 망아지를 타고 다녔을망정 인간성에 훼손됨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송도에 신임 유수로 승격되

어 자신의 위엄을 자랑하며 나타나자, 박지원이 그러한 그의 모습을 비판하는 내용의 편지입니다.

<학습활동>

1. 유언호가 박지원의 집에 어떤 모습으로 찾아왔을지 상상해 봅시다.
2. 박지원은 유언호의 어떠한 점을 비판하고 있나요?
3. 이를 통해 박지원은 어떠한 사회적 현실을 비판하고자 했을까요?
4. 박지원이 생각하는 벼슬아치의 진정한 도리는 무엇이었을까요?
5. 글쓴이는 이러한 자신의 견해를 상대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 편지는 박지원이 송도의 신임유수인 유언호(兪彦鎬, 1730~1796)에게 보낸 편지이다. 예전에 함께 학문과 시정을 논하던 유언호가 송도의 신임유수가 되어 박지원을 찾아오면서 높은 수레를 타고 좌우에 하인을 거느리고 거드름을 피우며 행차한 모양이다. 하지만 박지원은 자신은 유언호의 그러한 모습과 권력이 조금도 부럽지 않으며, 오히려 거리의 어린 아이들도 우러러보지 않는다고 비꼬고 있다. 유언호가 송도의 유수가 되어 걸치레를 요란히 하고 위엄을 떨지만, 예전에 자신이 만나던 그와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70) 박지원 지음, 김철조 옮김, 앞의 책, 207~208쪽.

인간됨을 바로 하지 않은 채, 자신의 권력을 믿고 거드름만 피워대는 벼슬아치들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박지원이 당대의 벼슬아치에 대해 가졌던 생각의 일면과 그의 사회·현실의식을 살펴볼 수 있다. 백성을 덕으로 다스리는 데에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서 얻은 권력을 뺏내고 허례허식만을 내세우는 지배 계층의 허욕과 위선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박지원이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이 특이하다. 예의를 갖추어 은근하게 비꼬면서도, 조금도 거리낌 없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통렬하게 비꼬는 어조가 앞의 장황한 사설에 이끌려 의미가 표면화되지 않고, 모가 살짝 눌러 완곡하게 되었다. 하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모욕감으로 충분히 치를 떨었을 법한 편지다.

박지원의 편지글을 통해 학생들은 당대의 벼슬아치들의 부조리와 박지원의 사회의식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은 비단 조선후기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오늘날도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정치인들이 사리사욕에 얽매어 부정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위엄을 뺏내기에 급급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사회와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키우고, 풍자적 표현 기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3. 교훈 중심의 편지와 인성 발달

돈이면 모든 된다는 황금만능주의, 인간의 존엄성조차도 위협하는 인명경시 풍조, 나의 이익만 우선시하는 이기주의와 같은 오늘날의 사회 풍조는 청소년 문제, 노인문제, 사회계층간의 갈등문제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낳고 있다. 수많은 자극적인 환경 속에 살면서 우리 아이들은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한 이기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져야 할 가정과 학교에서는 지식위주의 입시교육에 치우친 나머지,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아주는 도덕교육 · 인성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고는 옛 문인들이 편지글을 통해 행했던 가르침 속에서 아이들이 믿고 따라갈 도덕적 척도와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지는 인간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인간과 그 인간의 생활을 보다 넓고 깊게 해 준다. 오늘날 여러 통신수단으로 편지의 의사소통으로서의 역할은 경미해지고 있지만 편지글은 다른 통신수단으로 대신할 수 없는 인간 형성의 기능이나 인간 회복의 기능을 갖고 있다.

옛 문인들의 편지 속에는 힘든 현실의 질곡 속에서도 신념을 잃지 않았던 그들의 삶의 방식과 자기 확신이 그대로 드러난다. 우리는 그들의 삶에서 어떤 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인지, 그리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 주로 살피고자 하는 편지는 옛 문인들이 자식이나 제자에게 보낸 한문편지 중 인성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 글들을 대상으로 한다. 다산 정약용은 유배지에 있는 오랜 기간동안 아들들의 교육을 편지로 대신하였다. 정약용은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선비로서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과 행동, 학문하는 법 등의 실천적 행위들을 편지글을 통해 자녀들에게 세세히 가르쳤다. 자기 훈련을 통해 인격적이고 윤리적인 인간성 함양, 즉 품성 도야에 교육의 목표를 두었다. 이러한 정약용의 가르침은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미 있고 값진 것으로 교육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외에도 여러 문인들이 편지글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오늘날의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기고 있다.

여기서는 그들의 가르침을 ‘자의식의 형성’, ‘고난 극복 의지’, ‘이타심의 발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자의식의 형성’에서는 학생들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자신의 꿈과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바른 마음과 몸가짐을 갖도록 하였다. ‘고난 극복 의지’에서는 자신이 세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하는 신념과 의지를 배우도록 하였다. ‘이타심의 발현’에서는 자아 발견과 존중이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으로 이어져 올바른 인간관계를 형성하도록 하였다.

인성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편지글을 소개하고,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봐야 할 문제를 토의학습으로 제시하였다. 자신이 생각한 바를 다른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고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우며 올바른 인성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인성 교육이란 ‘~해야 한다’라는 공허한 외침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학생들이 스스로 깨우치고 행동으로 옮기는 교육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 자의식의 형성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는 삶의 근본적인 질문이며 다른 영역의 바탕이 된다.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로 어느 때보다 자아에 대한 이해와 자기 존중을 필요로 한다. 내가 하찮고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는 것은 학생들이 자신을 존중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형성하도록 한다. 자신이 중요하고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자신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이는 곧 타인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조화를 이루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영역이다.

교사의 생각을 넣어 주기만 하는 것은 좋은 교육이 아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알고, 정말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달아 간절한 바람을 뜻대로 삼고, 그 가능성을 찾아서 행하여 바로 그 자신의 삶이 되게 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일 것이다. 교사는 학생들이 자기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제시해줘야 한다. 본고는 옛 문인들이 한문편지에서 주는 가르침을 통해 그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절에서는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자신의 꿈과 포부를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닫도록 한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달아 간절한 바람을 뜻대로 삼고, 그 가능성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는 바른 마음가짐을 갖도록 한다.

<예1>

※ 이 편지는 조선후기 문인인 허위[°]가 자신의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는 의병으로 활동하다가 일본군에게 잡혀 결국 사형을 언도받는데, 교수형을 당하기 전에 아들들에게 편지를 써서 자기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아들들에게 주려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아래의 편지를 잘 읽고 다음 학습활동을 해 봅시다.

내가 일찍이 집 하나를 지어서 ‘육일(六一)’이라는 현판을 걸려고 하였다. 천(天)·지(地)·인(人) 삼재(三才)와 고(古)·금(今)·후(後) 삼세(三歲)를 합하여 육(六)이 되고, 내가 지금 사람 가운데 하나이니 또한 육 가운데 일(一)이 된다. 내가 이미 사람이 되었으니, 위를 본받고 아래로 이어 내려서 지금에 살고 있다. 나보다 먼저인 자는 나의 스승이 되고, 나보다 뒤에 오는 자는 나를 스승으로 삼을 터이니, 이 삶이 어찌 중하고 또 크지 않으랴.

만약 자신의 삶을 스스로 작게 여기거나 스스로 낮게 여겨, 지각없는 곤충이나 초목처럼 지내며, 하는 일 없이 어정어정 헤매면서 살다가 죽을 뿐이라면, 하늘이 나를 인간으로 여겨 주신 것에 대하여 장차 무엇으로 보답하겠느냐? 사람으로서 지금 해야 할 의리를 알지 못하고, 지금 살고 있는 도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삶이 없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어찌 부끄럽지 않겠느냐?

내가 집에다 특히 '육일'이라는 이름을 걸려고 하는 뜻은 사람이 해야 할 의리를 알았다거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도를 다했다는 것이 아니다. 이 집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오르고 내릴 때에 '육일'이라는 이름이 항상 보이기 때문에, (하늘이) 내게 주신 분명한 명(命)을 알고, 그 직분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깨우치려 한 것이다.

사람의 본성은 인의예지(仁義禮智)이고, 사람의 윤리는 부자·군신·부부·장유·붕우이며, 사람의 기예는 예(禮)·악(樂)·사(射)·어(御)·서(書)·수(數)이다. 사람의 도는 궁리(窮理)·정심(正心)·수기(修己)·치인(治人)이며, 사람의 직업은 사(士)·농(農)·공(工)·상(商)이다. 이것을 부지런히 힘써 조금도 게으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헛된 삶은 살지 않을 것이다. 이 뜻이 비록 간절하지만, 감히 나 혼자 차지하려는 것은 아니다.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자에게 그 덕이 바라는 것이니, 어찌 나의 집에만 이 이름을 쓰겠느냐. (이 이름을 쓰는 자들이)천이 되고 만이 되어, 천하에 널리 깔렸으면 한다.⁷¹⁾

[참고]

왕산 허위 (旺山 許蘧, 1855~1908)는 조선말엽, 우리나라가 일제의 침략으로 어려움을 당하자, 상소를 올리고 의병 활동을 하는 등 국권수호를 위해 힘쓰신 분이십니다. 그는 전국 각지에서 의병 활동을 하다가 1908년 일본군에게 잡혀, 회유와 심문 끝에 결국 사형을 언도받아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확신하고 일제에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은 훌륭한 분이십니다.

<학습활동>

1. 글쓴이가 집을 지어 현판에 걸려고 했던 이름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2. 글쓴이가 집에 이러한 이름을 현판으로 거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나요?

3. ‘하늘은 뜻이 없는 목숨을 낳지 않고, 땅은 의미 없는 생명을 기르지 않는다.’는 말의 뜻을 밑줄 친 글쓴이의 생각과 연관지어 ‘삶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4. 글쓴이는 아들들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바란 것일까요? 마지막 단락을 근거로 생각해 봅시다.

5. (토의학습) 우리는 왜 사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조원들과 함께 토의해 봅시다.

6. (토의학습) 자신이 진정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힘들어도 내가 품고 가야 할 포부에 대해 고민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조원들과 함께 토의해 보세요.

이 편지는 왕산 허위가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이다. 그는 나라를 위해 힘쓰다가 마지막으로 가는 길에 삶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뜻을 아들들에게 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서 하늘이 주신 명을 알고 자신의 직분을 다하라는 뜻이 비록 간절하지만, 감히 나 혼자 차지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한 것처럼, 이 편지는 겨레의 모든 아들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의 집에만 이 좋은 이름을 쓸 것이 아니라, 천이 되고 만이 되어 천하에 깔렸으면 하고 바랐다.

‘하늘은 뜻이 없는 목숨을 낳지 않고, 땅은 의미 없는 생명을 기르지 않는다.’는 말은 인간이 태어난 데는 다 그럴 만한 뜻이 있다는 말이다. 아이들은

71) 허위 저,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국역)허위전집』, 아세아문화사, 1985, 28~32쪽.

아직 자신들이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기에 갖게 되는 자아 정체감에 대한 극심한 혼란은 자신을 과소평가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정립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에는 학생들이 자신이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이며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에 대한 확신과 신념은 아이들로 하여금 간절하게 이루고 싶은 꿈을 갖게 하고 삶의 목표를 세우도록 한다. 교사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고, 자신의 삶을 긍정적이고 열심히 살아가도록 돕는다.

<예2>

※ 이 편지는 조선중기 문인인 서애 류성룡^o이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와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다음의 학습활동을 해 봅시다.

요즘 서울의 젊은이들은 마치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 같아서, 장기적인 계획은 없고 빨리 성공할 수 있는 방법만 연구한다. 그래서 성현들의 글은 선반에 밀쳐두고, 날마다 영리하게 남의 비위를 맞추는 작은 문자만 가지고 그 말을 따서 글을 지어 시험관의 눈에만 들게 하여 성공한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교묘한 방법으로 벼슬하는 사람들의 수단이지, 너희들같이 우둔하고 명예를 다투는 데 익숙하지 못한 사람은 본받을 태도가 못 된다. 모모(嫫母)가 서시(西施)를 본받는 것도 못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는데, 더군다나 제가 글이 서시와 같지도 않고 내가 모모도 아니면서, 어찌 이런 일을 본받겠느냐.

대개 학문에 있어서 잘하고 못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고, 성공하고 못 하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만 힘쓰고, 운명은 자연에 맡길 뿐이다.

[참고1]

서애 류성룡 (西厓 柳成龍, 1542~1607)은 조선중기 문인으로 관리로서의 역량과 학자로서의 학덕이 뛰어났습니다. 문집으로는 《서애집》이 있습니다.

[참고2]

서시는 중국 월나라의 유명한 미인입니다. 그러데 서시는 가슴앓이로 자주 눈살을 찌푸리는 버릇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 모모라는 추녀는 눈살을 찌푸리면 아름다운 줄 알고 자기도 눈살을 찌푸리며 다녔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모두 도망쳐 버렸다는 고사가 있어요. 옳고 그름과 착하고 악함을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남의 흉내를 내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학습활동>

1. 글쓴이는 요즘 젊은이들의 어떤 점을 비판하고 있나요?
2. (토의학습) 우리는 왜 공부를 하는 걸까요? 자신이 공부를 하는 이유에 대해 자유롭게 생각해보고, 발표해 봅시다.
3. (토의학습) 요즘도 성공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과 보람 중,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해 봅시다.
4. (토의학습) 글쓴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공부를 하는 자세와 관련지어 생각해 봅시다.

서애는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실제 이상으로 자랑하지만, 공부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논어》에

서도 “옛날의 학자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는데, 요즘의 학자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경계하였다. 서에는 요즘의 젊은이들이 시험관의 눈을 끌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걱정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교육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 오늘날의 교육 또한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꿈을 위한 준비가 아닌 성공을 위한 수단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할 뿐,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다. 막연하게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혹은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아이들이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꿈과 포부를 세웠다면 그걸 위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돕는 것도 교사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들이 정말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달아 간절한 바람을 뜻대로 삼고, 그 가능성을 찾아서 행하여 바로 그 자신의 삶이 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제각각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 목표를 세우도록 돕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다.

2) 고난 극복 의지

간절히 이루고 싶은 꿈과 포부를 세우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자신의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겪게 된다. 혹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오해하여 억울하게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그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은 되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실패의 요인으로 삼곤 한다. 자신을 그렇게 만든 사람과 사회를 미워하고, 자신의 삶이 여기서 끝난 것처럼 좌절하고 슬퍼한다.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이라는 말처럼 자기의 마음속에 자라나는 미움과 불평, 좌절과 포기가 자신을 더욱 나약

하고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다.

세상을 살다보면 우리는 크든 작든 간에 삶의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다. 때문에 어려움의 길목에서 지혜롭게 대처하고 극복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 삶의 어려움을 현명하게 대처하고 마음속의 나약함을 이김으로써 아이들은 세상에 대처하는 법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운다. 이러한 경험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오고 다음에 올 시련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게 하여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옛 문인들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굳건히 지키고,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도 용서하는 넓은 아량을 가지고 있었다. 일신의 편의를 위해 지조를 버리지 않았고, 한때의 어려움으로 자신의 꿈을 버리지 않고 끊임 없이 노력하였다. 옛 문인들의 한문 편지글을 통해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예1>

※ 아래의 편지는 조선 중기 문인인 이황이 이준에게 답한 편지입니다. 여러분이 공부 혹은 계획한 일을 할 때의 자세와 비교하면서 다음 학습활동을 해 봅시다.

그대가 지금 나에게 보내온 시를 읽으며 속에 담긴 뜻을 헤아려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하자마자 서둘러 마음이 흐뭇해지는 흥미로움과 흔들림 없는 효과가 나타나기를 바라는가 하면 공부를 하느라 매우 심하게 정력이 소모되고 전디기가 어렵게 되는 것을 괴로워하고 있군요. 또한 그러한 공부의 장애물이 나타나는 이유를 태어난 성격의 바탕이 좋지 못한 탓으로 돌리고 있군요. 너무 급히 앞으로 나아가 이루려던 나머지 오히려 너무나 빨리 후퇴하는 조짐을 보이는 듯하다는 말입니다.

비유하자면 100자 깊이로 우물을 파야하는 일을 하면서, 네 다섯 삽을 뜨자마자 벌써 물이 펄펄 솟아오르는 맑은 샘을 보려 하고 그래서 그 때부터 이미 샘

물이 보이지 않는다고 투덜거리면서 몸이 피로하고 힘이 다 빠졌다고 한숨쉬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끈끈거리며 힘을 들여서 90자까지 파 들어갔으나 아직 샘물에 닿지 않았을지라도 지금까지 힘들인 노력을 포기하지 말고 끝내 1백 자까지 파내려가서 물을 얻어 우물을 완성해내야 하겠지만 그것이 어찌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병통을 먼저 제거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함께 이 공부의 길을 뚫을 수 있을 것입니다.⁷²⁾

<학습 활동>

1. 이준은 어떠한 내용의 편지를 이황에게 보냈을지 상상해서 적어봅시다.
2. 이황은 이준의 학문하는 자세가 어떻게 잘못되었다고 했나요?
3. 밑줄 친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지 쓰세요.)
4. (토의학습) 여러분도 공부 혹은 계획한 일을 할 때 이런 경험이 있었다면 발표해 봅시다.
5. (토의학습) 자신이 계획한 일을 이루기 위해 가져야 할 자세와 노력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퇴계 이황이 이준에게 답한 편지이다. 이준이 타고난 성품을 핑계 삼아 학문 정진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편지를 하였다. 이에 대해 이황은 학문이란 끊임없이 정진하고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72) 이황 저, 퇴계학연구원 편역, 『퇴계전서』, 퇴계학연구원, 1997.

아님을 지적하였다. 급히 앞으로 나아가 이루려고 하면 오히려 빨리 지치고 포기하게 된다고 말하면서, 성품을 닦하기에 앞서 자신이 학문하는 자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권유하는 글이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가르침이 될 것이다. 이황은 학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우물 파는 일에 비유하여 쉽게 설명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이해하기에도 어렵지 않다. 항상 새로운 일을 꿈꾸고 계획하는 아이들에게 그것을 이루는 데는 어려움도 많고 고통도 따른다.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기도 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아이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고 잘하는 일을 찾게 되며, 그것을 위해 지금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 배우게 될 것이다.

<예2>

※ 이 편지는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다음 학습활동을 해 봅시다.

<편지1>

내가 너희들의 의중을 짐작컨대 공부를 그만두려는 것 같은데 정말로 무식한 백성이나 천한 사람이 되려느냐? 청족(淸族[°])으로 있을 때는 비록 글을 잘하지 못해도 훈인도 할 수 있고 군역도 면할 수 있지만 폐족(廢族[°])으로서 글까지 못한다면 어찌 되겠느냐? 글 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배우지 않고 예절을 모른다면 새나 짐승과 하등 다를 바 있겠느냐? 폐족 가운데서 왕왕 기재(奇才)가 많은데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과거 공부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과거에 응할 수 없게 됐다고 해서 스스로 꺾이지 말고 경전 읽는 일에 온 마음을 기울여 글 읽는 사람의 종자까지 따라서 쫓기게 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란다.⁷³⁾

[참고]

‘청족(淸族)’이란 깨끗하고 이름 있는 선비 집안을 말하며, ‘폐족(廢族)’은 무거운

죄를 저서 벼슬이나 출세길이 막힌 집안을 말합니다. 당시에 정약용은 천주교를 믿는다는 죄로 벼슬을 빼앗기고 오랫동안 유배생활을 하게 됩니다.

<편지 2>

한번 배부르면 살찐 듯하고 배고르면 아위어 빠진 듯 참을성이 없다면 천한 짐승과 우리 인간과 차이가 있다고 하겠느냐? 소견이 좁은 사람은 오늘 당장 마음과 같이 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의욕을 잃고 눈물을 질질 짜고 있다가도 다음 날에 뜻대로 되는 일이 있다면 벅글거리며 낮빛을 펴곤 한다. 근심하고 유쾌해하며 슬퍼하고 즐거워하며 느끼고 성내며 사랑하고 미워하는 모든 정이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데 달관한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비웃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때의 재해를 당했다 하여 청운의 뜻을 꺾어서는 안 된다. 사나이의 가슴 속에는 항상 가을 매가 하늘로 치솟아오를 기상을 품고서 천지를 조그마하게 보고 우주도 가볍게 손으로 요리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지녀야 옳다.⁷⁴⁾

1. 이 편지를 쓸 당시의 글쓴이의 상황과 아들들의 처지를 조사해 봅시다. ('신유박해'와 관련하여 찾아보세요.)
2. 당시 정약용과 아들들의 심정이 어땠을지,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봅시다.
3. 여러분이 만약 정약용의 아들과 같은 처지라면 어찌 했을지 생각해 보세요.
4. 힘들어하는 아들에게 정약용은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나요?
5. (토의학습) 자신이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 중 가장 힘들었던 일을 말해 봅시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나요? 만약 지금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조원들과 함께 얘기해 봅시다.

6. (토의학습) 다른 친구들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토의한 내용을 적어 봅시다.

신유박해(1801)⁷⁵⁾로 정약용은 18년간의 긴 유배 생활을 하게 되고, 그의 가족은 폐족이 되어 힘든 삶을 살게 된다. 당시 과거 공부를 하던 정약용의 두 아들은 벼슬길이 졸지에 막히고 만다. 이러한 상황은 공부에 매진하던 두 아들에게 받아들이기 매우 힘든 상황이었을 것이다. 정약용 또한 아버지로서 이러한 사실이 매우 가슴 아팠을 것이다. 그는 두 아들의 벼슬길이 막힌 것보다도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학문도 하지 않고 나쁜 길로 빠져 방황할까봐 더욱 걱정스러웠다. 그래서 그는 유배지에서 두 아들들에게 학업에 정진하고 바른 삶을 살도록 항상 격려하고 위로하였다.

정약용은 두 아들에게 큰 뜻을 품고 조그만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있다. 시야가 좁은 사람은 눈앞의 이해에 좌우된다. 그러니 멀리 내다보고 폐족이라 스스로 좌절하지 말고 잘 대처하도록 간곡히 이르고 있다. 당장 눈앞의 시련을 이기고 본래의 가문보다 더 완호하게 한다는 뜻과 항상 만백성

73) 정약용 지음, 박석무 편역,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창작과 비평사, 2000,

74) 정약용 지음, 박석무 편역, 위의 책, 163~164쪽.

75) 신유박해(1801) : 신유사옥이라고도 한다. 중국에서 들어온 천주교는 당시 성리학적 지배원리의 한계성을 깨닫고 새로운 원리를 추구한 일부 진보적 사상가와, 부패하고 무기력한 봉건 지배체제에 반발한 민중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면서, 18세기 말 교세가 크게 확장되었다. 그러나 가부장적 권위와 유교적 의례·의식을 거부하는 천주교의 확대는, 유교 사회 일반에 대한 도전이자 지배체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었다. 때문에 정조가 죽고 세도정권기에 들어서면서 천주교도에 대한 탄압이 본격화되었다. 1801년 나이 어린 순조가 왕위에 오르자섭정을 하게 된 정순대비는 사교邪教·서교西敎를 엄금·근절하라는 금압령을 내렸다. 이 박해로 이승훈·이가환·정약용 등의 천주교도와 진보적 사상가가 처형 또는 유배되고, 청국인 신부 주문모를 비롯한 교도 약 100 명이 처형되고 약 400 명이 유배되었다. 이 신유박해는 급격히 확대된 천주교세에 대해 위협을 느낀 지배세력의 종교탄압이자, 또한 이를 구실로 노론老論 등 집권 보수세력이 당시 정치적 반대세력인 남인을 비롯한 진보적 사상가와 정치세력을 탄압한 권력다툼의 일환이었다.

을 윤택하게 하고 사물을 기르려는 높은 뜻을 갖기를 강조하고 있다. 험난한 삶의 질곡 속에서도 신념을 잃지 않고 자신을 굽히지 않은 정약용의 모습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반성하고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토의학습에서는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겪었던 어려움과 그 때 자신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했던 노력들을 발표해 보도록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나쁜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같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다른 친구들의 어려움도 함께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이며, 다른 친구들이 지혜롭게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그렇지 못한 예를 통해 앞으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자세를 배우게 될 것이다.

<예3>

※ 이 편지는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힘들어도 지켜야 할 신념’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다음 학습활동을 해 봅시다.

천하에는 두 가지 큰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시비(是非)의 기준이요, 하나는 이해(利害)의 기준이다. 이로부터 네 개의 등급이 생기는 것이다. 옳은 것을 지켜서 해를 받는 것은 다음 등급이고 나쁜 것을 좇아 이익을 얻는 것이 그 다음이며 가장 낮은 등급은 나쁜 것을 좇아 해를 받는 경우이다.

이제 너는 내가 필천(筆泉) 홍의호에게 편지를 해서 항복을 빌고, 또 강준흠과 이기경에게 꼬리치며 동정을 받도록 애걸해 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앞서 말한 세 번째 등급을 택하는 일이다. 그러나 마침내는 네 번째 등급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 명약관화한데 무엇 때문에 내가 그 짓을 해야겠느냐.

강준흠이 작년에 나의 일에 대해 한 상소는 그에게 있어서는 이제 쓰어버린 화살인지라 지금부터는 죽는 날까지 입을 다물지 않고 나에게 대해 계속 욕하게 될 뿐일 것이다. 이제 내가 애걸한다고 해도 그가 나에게 대한 공격을 늦추고서 자기의 잘못을 후회하는 태도를 취하려 하겠는가? (중략)

내가 귀양이 풀려 돌아가느냐, 못 돌아가느냐 하는 일은 참으로 큰일은 큰일이니, 죽고 사는 일에 비하면 극히 잔다란 일이다. 사람이란 때로는 물고기를 버리고 웅장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만 귀양이 풀려 집에 돌아가느냐 못 돌아가느냐는 잔다란 일에 쟁싸게 다른 사람에게 꼬리를 흔들며 애걸하고 산다면, 만약 나라에 외침이 있어 난리가 터질 때 임금을 배반하고 적군에 투항하지 않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느냐? 내가 살아서 고향땅을 밟는 것도 운명이고, 고향땅을 밟지 못하는 것도 운명일 것이다. 비록 그러나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않고 천명만을 기다리는 것도 이치에 합당하지 않지만, 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이미 다 했으니 이르고도 내가 끝내 돌아가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운명일 뿐이다. 강씨 집안의 그 사람이 어찌 나를 돌아가지 못하게 하겠느냐? 마음을 크게 먹고 걱정 말고 세월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할지니 다시는 이러쿵저러쿵하지 말거라.⁷⁶⁾

1. 위의 편지글을 통해 정약용의 처지를 짐작해 봅시다.
2. 이 편지는 정약용의 큰아들이 보낸 편지에 답장을 한 것입니다. 아들이 어떤 내용의 편지를 보냈을지 짐작해 봅시다.
3. 글쓴이가 말한 두 가지 기준과 네 가지 등급을 정리해 봅시다.
4. 세 번째 등급을 택하는 것과 네 번째 등급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5. (토의학습)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함이나 오해를 받은 경험을 말해 봅시다.
6. (토의학습)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했나요? 지금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 봅시다.

이 편지는 큰아들이 보낸 편지에 대해 답장한 것으로, 다산을 포함한 자들에게 먼저 편지를 쓰라고 한 아들을 엄격히 꾸짖고 있다. 내가 고개를 숙여 뻔뻔스러운 낮으로 동정을 애걸하는 일은 세 번째 등급을 얻으려다가 네 번째 등급으로 떨어지는 비굴한 것이라는 것이다. 저들이 권력을 빙자하여 나를 공격해서 추자도나 흑산도로 보낼지라도 머리카락 하나 끄떡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엿보인다.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하며 사람은 경우에 따라 생명을 버리고 의리를 취해야 할 경우가 있음을 가르치고 몸소 행동으로 의(義)를 보여주고 있다.

모든 사물에는 일정한 원칙이 있다. 지켜야 할 규범, 약속, 질서, 도리가 있다. 저마다 제 자리가 있고 구실이 있고 책임이 있다. 조그만 이익 때문에 앞뒤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현대인들에게 정약용은 조그만 일에 자신의 절개와 양심을 잃어서는 안 되며, 자신의 확고한 신념을 용기를 갖고 행하라고 깨우치고 있다. 정약용의 편지글을 통해 학생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과 의지를 버리지 않고 지혜롭게 극복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3) 이타심의 발현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이다. 자신과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 사회를 이루며 살아간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가정과 학교생활 등 자신을 둘러싼 영역에서 서로 조화를 이룰 때 함께 살아가는 기쁨과 소중함을 알게 된다. 이 가운데 가정과 학교생활, 사회의 일원으로서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되어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를 가짐으로 궁극적으로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76) 정약용 지음, 박석무 편역, 앞의 책, 114~117쪽.

핵가족 현상, 경쟁과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 각종 사회 병리 현상은 우리 사회의 전반에 걸쳐 뿌리 깊은 불신과 이기심을 조장하였다. 아이들의 눈에 사회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경쟁하여 이겨야만 살아남는 것으로 비춰지기 쉽다. 교육 또한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예의와 존중을 바탕으로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품성을 기르는 교육이 아니라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나아가고 있어 안타깝다. 교사는 진정한 자아 발견과 존중이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으로 이어져 올바른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자기 식대로 세상을 보고 자기 판단대로 사람을 저울질함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단절과 오해가 온다. 보이지 않는 마음에 대해 이해하고, 그 사람의 행동 뒤에 있는 배경과 처지를 배려하는 마음을 통해 조화롭고 화목한 공동체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교사는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배려하며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표현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이 절에서는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정에서 부모를 섬기는 마음과 자세를 통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였다. 또한 자신의 단점을 되돌아봄으로써 다른 사람의 허물까지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고,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마음을 갖도록 하였다.

<예1>

※ 이 편지는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진정한 효’에 대해 생각하면서 다음의 학습활동을 해 봅시다.

아버이를 섬기는 일은 그 뜻을 거역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여인들은 의복이나 음식, 거처하는 것에 관심이 많으므로 어머니를 섬기는 사람은 사

소한 일에 유의해야만 효성스럽게 섬길 수 있을 것이다. 『예기(禮記)』의 내칙(內則) 편에는, 음식에 관한 것 등 조그만 예절이 많이 적혀 있는데, 이것은 성인의 가르침이란 물정(物情)을 알게 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지 결코 동떨어지고 미묘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고 있음을 알게 한다. 요즘 세상에 사대부(士大夫) 집안에서 부녀자들이 오래 전부터 부엌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예사다. 네가 한번 생각해 보아라. 부엌에 들어간들 무엇이 그리 손해가 되겠는가? 다만 잠깐 연기를 쏘일 뿐이다. 그런데 연기 좀 쏘이고 시어머니의 환심을 얻으면 효부가 되고 법도 있는 집안도 만드니 효도하고 지혜로운 일이 아니겠느냐? 또 너희 형제는 새벽이나 늦은 밤에 방이 찬가 따뜻한가 항상 점검하고 밑에 손을 넣어보고 차면 항상 따뜻하게 몸소 불을 때 드리되 이런 일은 종들을 시키지 않도록 해라. 그 수고로움도 잠깐 연기 쏘이는 일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만, 네 어머니는 무엇보다 더 기분이 좋을 것인데, 너희들도 이런 일을 왜 즐거워하지 않느냐?⁷⁷⁾

1. 글쓴이가 예로 든 효의 방법을 정리해 봅시다.
2. 글쓴이가 생각하는 진정한 효는 어떤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3. (토의학습) 부모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요?
4. (토의학습) 그런 부모님께 우리는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요? 일상에서 쉽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봅시다.

정약용은 효를 모든 일의 근본으로 보고 자녀된 모든 사람이 자기 도리를 다해 그릇되지 않고 매사에 정성된 마음과 경애로운 행실이 따르는 진심이 효의 근본정신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어버이를 섬김에는 뜻을 받드는 것이

77) 정약용 지음, 박석무 편역, 앞의 책, 33~35쪽.

가장 큰 ‘효’임을 밝히고, 부모를 아끼는 마음과 조그만 것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함을 일깨우고 있다.

부모 섬김에는 성심성의로 직접 보살펴 드리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손수 하여야 구들장의 차고 더웁의 알맞음을 알 수 있으니 노비를 불러 시키지 말고 스스로 나무를 가져다가 불을 지펴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 며느리는 아침저녁으로 부엌에 들어가서 맛있는 반찬을 장만하여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효도이며 지혜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정약용은 도덕적 실천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귀중히 여겨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지식교육에 편중되고 생활교육이 가정과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경애와 배려가 따르는 진심이 효의 근본정신이며,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물질적인 배려보다 앞서는 효라고 말하는 그의 정신은 큰 가르침임에 틀림이 없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다. 항상 자식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식을 내 몸보다 더 아끼고 걱정하시는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도록 한다.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는 활동이 될 것이다.

<예2>

※ 이 편지는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글쓴이가 ‘자신의 단점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대해 생각하면서, 다음 학습활동을 해 봅시다.

<편지1>

나의 둘째형님은 나의 지기(知己)이셨다. 일찍이 말씀하시길 “내 동생은 병통이 없으나 오직 국량이 좁은 게 흠이 된다.”고 하셨다. 나는 너의 어머니의 지기인데 내가 일찍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우리 아내는 부족함이 없으나 오

직 아량이 좁은 게 흠이 된다.”함이다. 너는 나와 너의 어머니의 자식으로 어찌 산이나 숲처럼 크고 활달한 극량을 지니기를 바라겠느냐만 너는 너무나도 극량이 좁아 이 애비보다 훨씬 더하니 이치상 당연한 귀결이다. 일찍이 티끌만큼도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출렁거리는 넓은 강물처럼 포용할 수야 있겠느냐? 극량의 근본은 용서해 주는 데 있으니 용서할 수만 있다면 좁도둑 같은 좁은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도 참을 수 있는데 하물며 보통 사람에 있어서랴?⁷⁸⁾

1. 글쓴이가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봅시다.
2. 다른 사람이 자신의 단점을 지적했을 때 자신은 어떻게 했는지, 이 편지의 글쓴이와 비교하여 봅시다.
3. 사람들은 모두 단점을 가지고 있고 잘못을 하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과 단점을 지적하기에 앞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글쓴이의 가르침에 비추어 생각해 봅시다.
4. (토의학습)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적어보고, 조원들은 이러한 자신의 단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 봅시다.

※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에 대해 생각하면서 편지를 읽고, 다음의 학습 활동을 해봅시다.

<편지2>

일가들 중 며칠째 밥을 짓지 못하는 이가 있다면, 너희들은 조짐의 쌀이나마 내주어 요기하게 해 주었느냐? 쌓인 눈 속에서 얼어 쓰러지면, 너희는 땀나무한 묽음이라도 나누어주어 따뜻하게 해주었느냐? 병이 나서 약을 먹어야 하는 이가 있으면, 너희는 한두 푼이라도 가져다 약을 처방하여 일어나도록 해주었느냐? 늙고 가난한 이가 있으면 너희는 때때로 가서 절하고 단정히 무릎을 꿇고 모시고 앉아 공경하였느냐? 근심거리가 있으면 너희는 얼굴색이 변하고 눈이 휘

등그레져서 그 근심하고 슬퍼하는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잘 처리할 방법을 의논해 보았느냐? 이상의 몇 가지 일들도 너희는 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일가들이 너희들의 급하고 어려운 일을 도와주러 황급히 달려오기를 바랄 수 있겠느냐?

내가 베풀지 않은 것을 남들이 먼저 베풀기를 바라는 것은 너희의 오만한 근성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로는 유념하여 평소 아무 일도 없을 때 공손하고 화목하며 신중하고 성실하게 행동하여 일가의 환심을 사도록 힘써라. 그리고 마음속에서 보답을 바라는 근성은 끊어버리고 남겨놓지 말아라. 훗날 너희에게 근심거리가 있는데도 저들이 보답하지 않더라도 너희는 마음속에 절대로 한을 품지 말거라. 한결같이 내 마음으로 미루어 용서하며 '저 사람이 마침 그럴 사정이 있나 보다. 그렇지 않으면 힘이 모자라는 것이리.'라고 여기고, 절대로 "내가 전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경박한 말을 입에 올리지 말거라.⁷⁹⁾

5. 글쓴이는 아들들의 어떠한 점을 꾸짖고 있나요?

6. (토의학습)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해 본 적이 있나요? 그때 마음이 어땠는지 생각해 보세요.

7. (토의학습) 6번의 사례에서 자신의 잘못은 전혀 없었나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그 사람을 이해해 봅시다.

8. (토의학습)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정약용의 편지 중, 비교적 유배 초기의 편지로 보인다. 다산의 가족들은 소

78) 정약용 지음, 박석무 편역, 앞의 책, 161~162쪽.

79) 정약용 지음, 박석무 편역, 앞의 책, 49~51쪽.

내의 본가로 돌아가 있었다. 서울에서 태어나 성장하였던 다산의 아들들이 소내에 새삼스레 삶의 터전을 이룩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임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게다가 정약용 형제들의 행적으로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된 상황이니 일가들의 시선인들 고왔을 리가 없다. 아들들은 아마도 이런 상황을 하소연하는 편지를 썼던 듯하다.

이에 대해 정약용은 남에게 먼저 공손하고 화목하며 근신하고 충성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나 절대로 마음속에 보답을 바라는 근성을 남겨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마음속에 남의 도움을 바라는 마음을 완전히 끊어버리면 자연히 심기가 화평해지고 하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는 병통이 없어질 것이라 하였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국가의 큰 죄를 입었으니 당연히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정약용은 넓은 국량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용서의 마음이 생긴다.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평가해보고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널리 이해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세상에는 용서 못할 만큼 큰 죄는 없다. 더구나 그 죄가 그만의 죄인가? 그의 가르침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아이들로 하여금 나의 부끄러운 일과 내 죄, 내 탓은 조금도 없는가를 돌이켜 보도록 한다. 아이들은 아무리 작고 보잘 것없는 인간이라도 업신여기지 않고 귀히 여기며 존엄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아울러 배우게 된다. 급박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 이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이겨나갈 방도를 의논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참된 삶의 모습이다. 누군가에게 받기만 하고 남에게 베푸는 법을 모르며, 내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남의 탓을 하기에 바쁜 아이들에게 정약용의 이러한 가르침은 큰 교훈을 준다.

IV. 결 론

오늘날 컴퓨터 및 전자통신 매체의 발달로 인터넷상에서 글을 쓰는 일이 매우 잦아졌다.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글쓰기의 경우,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빠르고 짧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해야하므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함에 있어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으므로 과격한 표현도 서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에 가장 노출되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의 아이들이다. 인터넷이 우리의 말과 글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가시화된 현실 속에서 아이들의 정서와 인성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글쓰기 교육의 목표와 방법이 '표현 기능 교육'에 그쳐서는 안 되며, '올바른 가치관' 교육도 함께 추구하여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한문 편지가 갖는 쓰기·문학·인성 교육적 가치에 주목하여 중등과정 학생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옛 문인들이 쓴 한문 편지글의 감상을 통해 그들의 가치관과 생각, 진실한 감정 등을 이해함으로써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 형성과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더불어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상대에게 명확하게 표현하며, 상대를 배려하는 격의 있는 글쓰기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II장에서는 현행 편지 관련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밝히고, 편지의 교육적 가치를 쓰기 교육·문학 교육·인성 교육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현행 교육 과정에서 편지는 실용문의 범주에서만 교육되고 있으며 편지 쓰기가 갖는 정의적 측면은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들고, 편지 교육이 실

용문과 문학을 아우르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편지 교육의 정의적 측면에 주목하여 이러한 효과를 교육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편지 쓰기는 비교적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쓰기 방식이므로 글쓰기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받을 사람과 쓰기 목적을 달리 하여 여러 가지 글쓰기 방식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쓰기 교육적 가치가 있다. 또한 그리움이나 슬픔, 기쁨과 같은 인간적인 감정을 서정적으로 표현하고 일상에서 느낀 생각들을 작가의 상상력으로 참신하게 표현한 편지 작품은 학생들이 재미있게 작품을 감상하고 선인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이해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학 교육적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편지들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며 자기 성찰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인성 교육적 의의를 아울러 지닌다고 보았다.

Ⅲ장에서는 이러한 교육적 가치들을 이끌어내기 위해 한문 편지 자료를 ‘전달 중심의 편지’, ‘표현 중심의 편지’, ‘교훈 중심의 편지’로 나누어 편지 교육 방법을 살펴보았다. ‘전달 중심의 편지’에서는 ‘쓰기’ 교육의 가치를, ‘표현 중심의 편지’에서는 ‘문학’ 교육의 가치를, ‘교훈 중심의 편지’에서는 ‘인성’ 교육의 가치들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각 장에서는 한문 편지의 예와 그에 따른 학습 활동을 제시하였다.

‘전달 중심의 편지 교육 방안’에서는 실용적 목적을 가지고 쓴 한문 편지를 대상으로 하여 쓰기 목적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글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고 남을 배려하는 예의바른 글쓰기로 나아가도록 하였다.

‘표현 중심의 편지 교육 방안’에서는 문학적 표현이 돋보이는 한문 편지인 ‘척독’을 대상으로 하였다. 옛 문인들의 기지와 해학이 담긴 편지 작품을 통해

학생들이 문학적 감상력을 키우고 창의적 글쓰기로 나아가도록 하였다.

‘교훈 중심의 편지 교육 방안’에서는 옛 문인들이 제자나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학문을 하는 자세와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는 한문 편지를 대상으로 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의 지표로 삼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서로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정을 나누는 편지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인간관계의 올바른 형성을 자연스럽게 도모해 준다. 서로간의 감정이 스며든 아름다운 편지는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가꿔 주며, 작은 기쁨과 용기를 주는 소중한 마음의 벗이 된다.

본고는 정을 담는 글이라는 편지의 본령에 충실하여 학생들이 편지를 읽고 쓰는 즐거움과 재미를 느끼도록 하고 싶었다. 학생들과 동떨어진 교육이 아니라 교사와 함께 해보고 자유롭게 느끼는 활동이 되도록 하고 싶었다. 그러나 의도한 만큼 잘 드러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든다.

편지 교육은 그 교육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수업시수의 부족 등과 관련된 현행 교육 과정의 여건상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다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고의 한문 편지 교육 방안은 현행 교육 과정에서 보충 학습이나 교사의 재량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이 부족한 글이지만 중등학교 교사의 교육 자료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1. 문집 및 교과서

-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어 1-1』, 대한 교과서, 2002.
-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생활국어 1-2 교사용 지도서』, 2002.
-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어 2-2 교사용 지도서』, 2003.
-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생활국어 3-1 교사용 지도서』, 2003.
-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국어(상) 교사용 지도서』, 2002.
- 김병국 외, 고등학교 『문학(상)』, (주)한국교육미디어, 2002.
- 김윤식 외, 고등학교 『문학(하)』, (주)도서출판 디딤돌, 2003.
- 이덕무 저, 민족문화추진회 역, 『(국역)청장관전서Ⅲ』, 민족문화추진회, 1979.
- 이황 저, 퇴계학연구원 편역, 『퇴계전서』 권9, 퇴계학연구원, 1997.
- 허위 저,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국역)허위 전집』, 아세아문화사, 1985.

2. 단행본

- 국어교육위원회 지음, 『글쓰기와 삶』,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6.
- 권호, 『고전수필개론』, 동문사, 1998.
- 김남선, 『인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내일을 여는 책, 1998.
- 김대행, 『문학교육 틀짜기』, 역락, 2000.
- 김동범, 『인품이 돋보이는 편지, 성공이 묻어나는 DM』, 금융보험통신, 2002.
- 리가원 · 허경진 옮김, 『연암 박지원 산문집』, 한양출판, 1994.
- 박제가 지음, 안대회 옮김, 『박제가 산문집-궁핍한 날의 벗』, 태학사, 2000.

박지원 지음, 김혈조 옮김, 『그렇다면 도로 눈을 감고 가시오』, 학고재, 1997.

반숙희 · 박안수 지음, 『갈래별 글쓰기』, 나라말, 2000.

서울시립대학교 교양교재편찬위원회, 『대학인의 글쓰기』, 새문사, 1999.

손광성 · 임종대 · 김경수 역, 『한국고전명수필』, 을유문화사, 2000.

심경호, 『한국 산문의 미학』,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8.

이남규 저, 홍승균 역, 『(국역)수당집』, 민족문화추진회, 1999.

이덕무 지음, 권정원 옮김, 『책에 미친 바보』, 미다스북스, 2004.

이상익, 『고전수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집문당, 1999.

이오덕, 『삶을 가꾸는 글쓰기 교육』, 보리, 2004.

이옥 지음, 심경호 옮김, 『이옥 산문집-선생, 세상의 그물을 조심하시오』, 태학사, 2001.

이윤희, 『퇴계선생에게서 배우는 인생의 지혜』, 지영사, 2001.

이지호, 『글쓰기와 글쓰기교육』,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이태준, 『서간문장화』, 깊은샘, 2004.

이황 · 기대승 공저, 김영두 옮김, 『퇴계와 고봉, 편지를 쓰다』, 소나무, 2003.

임재완 편역, 하영휘 교열, 『조선시대 문인들의 초서 편지글』, 호암미술관, 2003.

정약용 지음, 박석무 편역,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창작과 비평사, 2000.

정약용 지음, 박무영 옮김, 『정약용 산문집-뜨세상의 아름다움』, 태학사, 2002.

정약용 · 정약전 저, 정혜림 편역, 『다산서간정선』, 현대실학사, 2002.

장덕순, 『한국 수필문학사』, 박이정, 1995.

조면희 옮김,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옛글 백가지』, 현암사, 1997.

최성애, 『자기표현 시대에 쓸모 있는 글쓰기』, 석탑, 1998.
편지쓰기장려회 엮음, 『현대인의 편지백과』, 재단법인 우정사업 진흥회, 1990.
학원사 편집국, 『서간문전서』, 학원사, 1958.
한국고간찰 연구회 편역, 『옛 文人들의 草書 簡札』, 도서출판 다운샘, 2003.
한양대학교 국어교육위원회 편, 『글과 생각』,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1.
허균 지음, 김풍기 옮김, 『허균 산문집-누추한 내방』, 태학사, 2003.
허경진 편역, 『내 아들 딸들에게 아버지가 쓴다』, 푸른역사, 1999.

3. 논문

강민구, 「恕菴 申靖夏의 文學論에 대한 研究」, 『한국한문학회연구』 제25집, 한국한문학회, 2000.
권정원, 「靑莊館 李德懋의 尺牘 研究」, 『동양한문학회연구』 제15집, 동양한문학회, 2001.
김미애, 「기초 서술력 신장을 위한 작문지도 방법에 관한 연구 : 중학교 학생의 편지글 분석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1988.
김봉옥, 「추사 김정희의 유배 서간 연구」, 제주대 교육대학원, 1991.
김성진, 「許筠의 尺牘에 대한 一考察」, 『한국한문학회』 제32집, 한국한문학회, 2003.
김효경, 「18세기 간찰교본 《簡式類編》 연구」, 『藏書閣』 제9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
박무진, 「정서적 교감을 위한 편지쓰기가 아동의 자아개념 및 인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논문집58, 부산광역시 교육연구원, 1999.
박영복, 「효율적인 작문 학습을 위한 문장 유형별 지도에 관한 연구 : 편지글

- 지도를 중심으로」, 교육논총1,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1981.
- 배미정, 「구양수와 소식의 척독 모음집 <구소수간(歐蘇手簡)>」, 『문헌과 해석』 24호, 문헌과 해석사, 2003.
- 배미정, 「신정하 척독(尺牘)의 즐거움과 아름다움」, 『문헌과 해석』 27호, 2004.
- 서희석, 「중학교 글짓기 지도에 관한 연구; 편지글쓰기 지도 중심」, 단국대 교육대학원, 1989.
- 심경호, 「박지원과 이덕무의 戲文 교환에 대하여」, 『한국한문학연구』 제 31집, 한국한문학회, 2003.
- 안대회, 「조선후기 小品文의 성행과 글쓰기의 변모」, 『한국한문학연구』 제28집, 한국한문학회, 2001.
- 안대회, 「더이상 짧을 수 없는 편지-박지원의 척독소품(尺牘小品)」, 『문학과 경계』, 문학과 경계사, 2001.
- 유길, 「편지놀이를 통한 정주고 받는 글짓기 교육」, 문교경북78,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1983.
- 유정희, 「다산의 자녀교육 연구 : 가계와 서간을 중심으로」, 단국대 교육대학원, 1991.
- 윤미자, 「사이버문화가 청소년들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천안대 정보기술대학원, 2003.
- 이지연, 「즐거쓰기를 통한 작문 지도 방안 연구」, 청주교육대 교육대학원, 2004.
- 정민, 「우리 선인들의 글쓰기 이론」, 『문학과 교육』 17호, 문학과 교육연구회 · (주)한국교육미디어, 2001.
- 정민, 「燕巖 尺牘小品의 문예미」, 『한국한문학연구』 제31집, 한국한문학회,

2003.

정재룡, 「편지글짓기 지도 연구 : 중학생을 대상으로」, 경상대 교육대학원, 1993.

최승호, 「한국수필문학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0.

홍인숙, 「李德懋 척독 연구-‘내면’, 혹은 ‘사적 자아’의 발견-」, 『한국한문학연구』 제33집, 2004.

황영오, 「다산의 인성교육 연구」, 인하대 교육대학원, 2000.

ABSTRACT

RESEARCH ON THE EDUCATION PROGRAM USED BY CHINESE LETTER.

Seo Ji-won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thesis written focusing on the writing, literature and the value of moral education, through the training of writing letters, aims at studying education program, such as learning device capable to draw such an educational value effectively.

As writing letters is a writing method accessible comparatively to students, it is possible for them to enhance their interest and accessibility in writing. Making a different writing purpose with recipients, writing letters deserves an educational value which allows to learn various ways of writing.

Letter works express humane feelings lyrically like missing, grief and pleasure and do daily thoughts with writers' imaginative power enable every students to read them appreciatively with fun and make them understand ancestors' way of life and sense of value. In these regards, we have to accept an educational significance herein.

In addition, writing letters make us think in other's place and let us

feel an importance of daily life and give us a chance of self-reflection. On this point, it contains a significance of moral education as well.

In teaching students writing letters full of educational significance, this thesis made use of chinese letters written in the ancient times. It is because that we can find educational value in the chinese letters written by ancient literary men even though time and society changed a lot but students are still not easy to access in the process of modern education system.

Ancient literary men spread logically their thought idea and feeling in the letters and they wrote letters in care of readers. Writing letters, as one of literary works, disclosed writers' own thought and real emotion systemally and confidently, sometimes literary in the aspect of expression too. Ancient literary men had shared things in mentality with their friends and attained moral education for their disciples and children.

This thesis is that chinese letters contains educational value in itself drawn through lettering education. Therefore, this thesis is for the purpose of helping mental cultivation and forming human nature desirable to students through appreciating chinese letters written by ancient literary men, paying attention to these educational respects exist in old chinese letters.

In addition, this thesis aims students to arrange their own thought and feeling logically, helping them express themselves definitely to recipients and develop to write lofty sentence caring partners.

Fixing these purposes, datum on the chinese letters are divided into "

communication intensive letter", "expression intensive letter" and "instruction intensive letter". I tried to draw an educational value, such as, value of writing from "communication intensive letter", literary value from "expression intensive letter" and value of moral education from "instruction intensive letter". In order to explain more in details, I presented a few examples of chinese letters and learning practices thereon.

In the educational program of communication intensive letter, choosing the chinese letters written in practical aim, they let students learn how to express their own thought effectively and led to polite writing caring others.

In the educational program of expression intensive letter, adopting "Chuk-Dog" (it means that was oriented to express more poetically dor lyrically than formula in style) which shows excellence in literary expression as models, it let students expand their appreciative power in literary works through letter works containing ancient writers' wit and humor and cause creative writing.

In the educational program of "instruction intensive letter", choosing the chinese letters involving instruction related with living and academic attitude among letters which ancient writers sent to their disciples or children, I want to help students look back their life and make it an index of their life.